

겨 자 씨

2
0
2
1
가
을
호

2021년 표어 : 말씀으로 세워지는 공동체

목 차



칼럼

- 03 2021년 하반기 사역 방향을 나누며 / 김준섭 담임목사
- 05 다음 세대 신앙 교육 변화가 필요하다! / 이정민 목사
- 07 신학이란 무엇인가? -2 / 광명철 집사

문화 원고

- 10 The Scret of Walter Mitty / 김상보 장로

간증

- 14 영유아부를 섬기며 / 최민정 집사
- 16 주와 함께 걸어온 길 / 조은규 집사
- 19 하루 / 엄두간 집사
- 25 일상에서 만난 하나님 / 전해나 청년

AKPC 조직도 & EM.YOUTH 예배실

- 28 교회학교 조직도
- 31 친교실 예배

새가족 & 목장 소개

- 32 인터넷 이사 / 김진희 집사
- 35 어스틴 정착기 / 이한주 집사
- 38 가나 목장 소개 / 백정선 집사

행사

- 40 QT Tree Festival 행사를 준비하며 / 김지현 집사
- 43 QT 축제 / 이연숙 집사
- 46 Beyond / soobeen Ahn

선교 통신

- 49 GP-Brazil 선교회 10주년을 되돌아보며 / 김선웅 선교사
- 55 코로나로 위독한 선교사 위해 에어 앰블런스 이송 / 표현모 기자
- 57 펜더믹 시대에 열린 사역 / 김성일 선교사
- 59 페루 선교 / 김성일 & 김성숙 선교사
- 61 러시아 선교 통신 / 윤미경 선교사

AKPC 겨자씨 문서 선교팀
제 7호 발행일 2021년 10월

주소 : 12311 Natures Bend
Austin, TX, 78753
전화 : 512-454-1727
팩스 : 512-454-6888
이메일 : akpc@akpc.org
홈페이지 : <http://www.akpc.org>

발행인 : AKPC 어스틴한인장로교회

편집인 : 광명철, 김선옥, 동지현, 손성태, 양민희,
엄두간, 오선주, 이인권, 전해나

2021년 하반기 사역 방향을 나누며

김준섭 담임목사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느덧 가을의 문턱이 우리 앞에 성큼 다가왔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성도님들 가정과 일터에 함께 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지난 상반기 교회의 사역을 돌아볼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또한, 우리 성도님들의 사랑과 기도와 헌신에 마음 깊이 감사드립니다.

교회는 올해 4월 ‘예수산책 AKPC’ 교회 비전을 선포하고, 말씀 공동체, 제자 공동체, 미션 널 공동체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세워지는 공동체’를 2021년 교회 표어로 삼고 힘차게 달려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QT 생활화를 목표로 성도님들이 매일 QT에 참여하시고, QT 나눔이 가정과 목장에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전교인 QT 세미나(2월), 부서별 자체 QT 세미나와 교육, QT 본문과 함께하는 주일 설교(4-7월)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8월 28일에는 ‘전교인 QT Tree Festival’이 주님의 축복 가운데 개최되었습니다. 계속해서 QT가 우리 생활 속에 뿌리내리고, 교회의 문화로 정착할 수 있도록, 성도님들의 지속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2021년 하반기 사역 방향을 나누겠습니다. 하반기는 말씀 공동체의 비전과 함께 ‘예배의 변화’와 ‘기도의 실천’을 추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예배의 변화와 관련하여, 온 회중이 예배의 깊이와 풍성함을 경험하도록 1부 예배와 2부 예배의 형식에 변화를 갖도록 합니다. 1부 예배는 전통적 예배의 분위기를 살리고, 2부 예배는 현대적 예배의 느낌을 더하고자 합니다. 1부와 2부 예배의 시작 부분에 ‘영광송’이 도입됩니다. 영광송은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마음을 담아 부르는 찬양입니다. 사회자, 찬양 인도자, 찬양대, 찬양팀, 온 회중이 함께 영광송을 부름으로써, 하나님께는 영광을 올려드리고, 성도님들은 예배의 깊은 감격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





다. 예배의 변화는 10월 초에 시작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기도의 실천과 관련하여 ‘토요 무릎기도회’가 진행됩니다. 코비드 상황으로 인해, 평소 새벽기도회를 현장에서 드리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 일주일에 하루(토요일) 시간을 정해 모든 성도님들이 현장에 모여 한마음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의 무릎을 꿇고, 이 시대를 위해, 교회를 위해, 다음 세대 자녀를 위해, 가정을 위해, 그리고 각자 개인의 기도 제목을 품고 간절히 기도하고자 합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은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위대하다’는 John Knox의 선언을 기억하며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토요무릎기도회는 코비드 팬데믹 안전 수칙을 지키면서, 10월 초부터 매주 토요일 아침 6:30에 시작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이번 하반기에는 ‘1:1 제자양육 장로 특별반’이 운영됩니다. 2022년에 도입될 1:1 제자양육 프로그램을 위해, 교회 리더십인 장로님들이 먼저 참여하여 교회의 제자 양육 및 훈련 비전을 공유하게 됩니다. 첫 시간 오리엔테이션에 이어서, 총 16과를 8주간 진행하고(주별 2과), 그 후 소감 나눔의 시간을 갖게 됩니다. 1:1 제자양육은 충성된 한 사람(인도자)이 다른 한 사람(동반자)과 말씀을 통한 인격적 만남을 갖고, 이를 통해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예수님 제자를 세우는 프로그램입니다. (골 1:28, 딤후 2:2). 9월 15일부터 매주 수요일 저녁 7:30에 시작됩니다(10주간). 1:1 특별반 인도자(김준섭 담임목사)와 참여자(시무, 휴무 장로)를 위해, 1:1 제자양육을 섬기는 훈련위원회를 위해, 2022년부터 시작될 교회의 1:1 제자 양육을 위해, 성도님들의 기도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름다운 가을.. 주님과 함께, 풍성한 은혜와 기쁨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참 사랑합니다.

목사님 칼럼

다음 세대 신앙 교육 변화가 필요하다! 이정민 목사



미주 한인 교회 및 한국 교회에서는 오랫동안 교회 학교의 위기에 대한 의견들이 많이 나누어져왔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학생들의 수가 계속해서 감소한다는 것이 위기의식의 핵심입니다. 출생률로 인한 감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대학생이 되어 부모의 품을 떠나게 될 때 교회를 떠나는 통계가 계속해서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에서 발행한 최근 데이터를 보면 지난 10년 동안 교회 주일 학교 어린이가 40% 이상 감소하였고 주일 학교를 운영할 수 없는 교회들도 증가했습니다. 코로나 이후로는 주일 학교의 위탁 교육의 문제점이 드러났는데 가정에서의 자녀 신앙 교육의 결핍과 교회 학교의 부재로 인해 자녀 신앙교육이 붕괴하는

현실이 낮낮이 드러난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먼저 자녀들의 신앙 교육 재점검이 필요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신뢰하며 예수님과 평생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골로새서 1장16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내가 예수님 안에서 누구인지를 알고 배우며 성장하고 성숙한 삶을 살도록 인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들의 신앙 성장을 위해 취해야 할 우리들의 역할이 있습니다. 교회는 예배를 배우는 공간이 되어야 합니다. 다양한 신앙 활동의 기회를 제공하며 “믿음의 공동체”를 경험할 수 있도록,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소속감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그리고 신앙 교육을 위한 가정에서의 역할이 있습니다. 가정은 신앙의 “삶” 자체를 배우는 공간입니다. 즉, 부모님의 신앙 교육이 가장 효과적인 신앙 교육인 것을 인지해야 합니다.

세대 간에 믿음의 교제를 하며 부모와 자녀의 신앙이 함께 성장하는 것을 경험해야 합니다.

“Faith is not taught, but it’s caught!” 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신앙은 말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진실한 삶으로 보일 때 얻어진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삶으로 보일 때 자

너들은 자연스럽게 신앙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함께 변화해야 합니다! 교회 리더십은 어린이들을 향하여 공동체의 중요한 멤버로서의 인식이 필요합니다. 어린이들이 교회 활동을 존중하고 공동체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합니다. 믿음의 본이 될 책임감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으므로 믿음의 대물림을 해주어야 합니다.

부모님들은 신앙 교육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형성에 부모의 모델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자녀들의 믿음 성장이 가정에서 우선적으로 일어난다는 것을 공감해야 합니다. 교회 학교는 위탁 교육이 아니라 신앙교육을 돕는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부모세대의 신앙의 성숙이 다음 세대가 보고 배우는 효과적인 신앙교육이 됩니다. 아이들과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교사가 필요합니다. 주입식 교육이 아니라 아이들의 필요를 귀 기울여 주고 공감대를 형성하며 신앙의 멘토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회는 아이들에게 제2의 믿음의 부모의 역할을 감당할 사명이 있습니다.

미래의 우리 자녀들의 모습을 그려봅니다. 교회와 부모와 교사들이 함께 우리 자녀들의 신앙 생활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때 우리 아이들은 믿음을 확실히 고백하는 신앙인으로 자라나고 복음을 확실히 알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다니엘서 12:3절의 말씀입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데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다음 세대를 위해 교사로, 봉사자로, 후원자로 함께 해주세요! 성도님들 모두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이 특별한 사역에 함께 하시지 않겠습니까?

독자 칼럼

Christian Theology (6판); 신학이란 무엇인가?

-알레스터 맥그래스
곽명철 집사

본 책 3부의 내용은 기독교 신학의 핵심교리들을 다룬다. 사실 한장 한장의 내용이 너무도 중요하고 가볍게 다루거나 쉽게 요약할 수 없는 귀한 내용이다. 이 요약 글이 독자들에게 시간을 내어서 책을 직접 읽거나 더 연구하게 하는 마중물이 되길 소망한다

9장 ‘신론’에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를 다룬다. 오랜 기독교 역사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남성’이나 ‘아버지’라는 이미지로 그려왔다. 저자는 이장을 하나님은 ‘남성’인가? 라는 질문으로 시작하여, 흔히 기독교인들이 말하는 ‘인격적’ 하나님의 의미를 설명하고, 또 하나님도 고난 당하시나?는 이 질문을 통해 그리스 철학적 전통에 기반한 일차적인 ‘불변/무감각하신’ 하나님이라는 고전적 신론의 한계를 극복한, 고난 당하는 그래서 인간의 고난을 아시고 참여하시는 현대적 신론을 설명해준다. 아울러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지를 묻고 하나님의 절대적 능력과 자기 제한개념을 다룬다. 이장의 후반부에서는 ‘세상속에서 활동하시는 하나님’을 잘 설명해준다. 특히 이신론적인 신이 아니라 여전히 세상의 모든 일에 관여/섭리하시는 하나님, 더 나아가 하나님이 계신다면 왜 세상에 악과 고통의 문제들이 만연하는가? 라는 신정론의 도전 속에서도, 그분의 의지와 섭리 속에 그 문제들에 대응하시고 해결하실 능력의 하나님을 설

명한다.

10장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그리스도론)’에서는 기독교 신학에서 핵심적/중심적 예수그리스도의 위치 (기독교 역사의 출발점, 하나님의 구원과 계시에 관여함, 구속받은 삶의 형태를 규정)를 설명하고, 아울러 신약성경에서 사용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칭호 (인간의 구주, 예배를 받으시는 분, 하나님을 계시한다)는 그가 하신 일과 인격을 반영함을 설명한다. 또 예수 그리스도가 신성과 인성을 갖춘 참 인간이라는 교리가 형성되기까지의 두 본성 대한 논쟁들의 역사와 그리스도론의 모델들을 소개하였으며, 보다 현대적인 이슈인 ‘역사적 예수 논쟁’을 통해서 간과하기 쉬운 예수의 인성 부분을 회복하고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며, 계몽주의의 출현 이후에 끊임없이 대두되어온 그리스도의 부활 논쟁과 그에 반박하는 부활의 역사성 대한 통찰을 제공한다.

11장 ‘구원의 본성과 기초 (사역론)’에서는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주제인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 (그의 삶, 죽음과 부활)와 연결되어있으며, 구원이 과거와 현재뿐 아니라 미래 사건을 포함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기독교 구원의 근거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이며, 희생제물로서의 십자가, 승리로서의 십자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배상을 이룬 십자가, 사랑을 보여준 십자가 등 다른 각도에서 조명된 성경적 십자가의 의미를 설명하고 있

다. 마지막으로 ‘고전적/ 현대적 다양한 그리스도 안의 구원의 모델들’에서는, 바울이 사용한 구원의 이미지들, 기독교 신학 안에서 발전된 구원의 개념들 (신화, 칭의, 성결)과 현대적 구원의 모델들이 (실존의 회복, 정치/경제적 해방, 영적 자유 등) 다루어진다.

12장 ‘성령’에서는 아직도 성부와 성자의 교리에 비해 상대적으로 모호하고, 구체적 모습을 그리기 힘든 ‘보혜사’ 성령의 모습을 성경적 증언/유비 (바람, 호흡과 은사)로 서술하며 시작한다. 성령의 신성과 역할 및 구원의 경륜 안에서 성령의 위치에 대한 교부시대부터의 이해, 동서방교회의 대분열을 초래한 성령에 대한 펠리오케 논쟁, 20세기 초반의 오순절 운동으로부터 시작된 성령에 대한 최근의 논의와 신학적 운동들 설명한다.

13장 ‘삼위일체론’은 기독교 신학에서 매우 중요한, 그러나 가장 난해한 교리를 다루는데, 바다를 비유기 위해서 자기가 판 모래 구덩이에 바닷물을 옮겨 담는 소년과 성 아우구스티누스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한다. 이는 하나님을 이해하려는 인간의 능력의 한계를 설명하려는 듯하다. 이성으로 쉽게 이해하기 힘들고, 일견 불합리한 듯한 신비인 삼위일체론의 근원이 무엇인지 (성자와 성령을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데서 비롯됨), 삼위일체론의 성경적 기초와 교리 형성의 역사, 그에 대한 종교개혁시대 이후의 비판들, 마지막으로 그 불합리성을 해결하고자 시도된 현대 신학자들의 연구성과와 그 영향을 받은 분야들을 (선교신학, 예배신학, 교회론등) 다룬다.

14장 ‘인간의 본성과 죄와 은총’은 신학의 핵심 주제인 죄인이 (인간) 어떻게 구원을 (구원자; 하나님) 받는가? 를 다룬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창조된 존귀한 인간은 하나님에게 등을 돌리는 죄를

범함으로 파생된 그 전적인 타락의 상태에서부터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하기(구원) 위해서는 외부적인 도움인 하나님의 은혜(은총)가 필요한 존재임을 설명한다. 아우구스티누스와 펠라기우스의 논쟁을 통해, 아우구스티누스는 인간의 자유의지는 죄를 향해 기울어져 있으나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에도 열려있으며, 죄 (질병, 권세, 죄책)의 성격과 스스로 의로워질 수 없는 존재를 의롭다고 만들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한 그의 은총론이 잘 설명되어 있다. 더 나아가 사랑에 근거한 아우구스티누스 ‘칭의론’, 믿음에 근거한 루터의 ‘이신칭의론’, 칭의는 성화와 결코 분리될 수 없으며 그리스도와 성도의 연합에 근거한 존 칼빈의 ‘이중 은총론’ 등을 잘 서술한다. 또 흔히 개혁주의의 산물로만 여겨진 ‘예정론’의 역사와 종교개혁시대 이후의 그 발전을 다루고, 마지막으로 19세기 이후 기독교의 가장 큰 위협으로 등장한 다윈주의와 기독교의 신앙을 어떻게 조화시킬지를 제안한다.

15장 ‘교회론’은 많은 사람이 질문을 던지는 교회란 무엇인가? 에 대한 대답을 주려고 노력한다. 우선 성경에 나오는 교회의 모델들과 그 의미들, 교회사 속에서 교회론의 발전(특히 도나투스논쟁을 통한 아우구스티누스의 교회론의 체계화와 종교개혁시대와 그 이후의 교회론)과 20세기의 교회론까지 서술한다. 마지막으로 교회의 4가지 ‘표지’ (하나의, 거룩한, 보편적인, 사도적인)들과 사제직과 그에 수반한 사역을 설명하는 것으로 마무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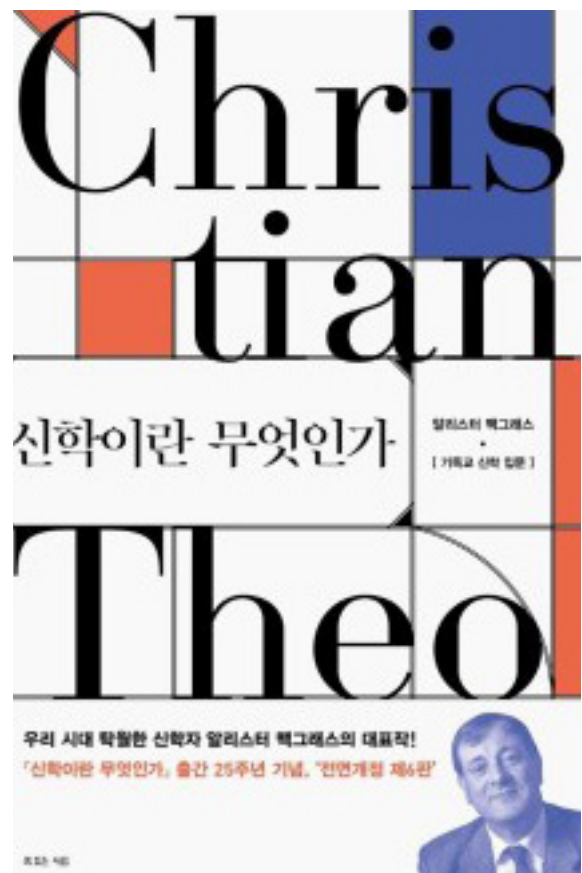
16장 ‘성례전’에서는, 개신교도들은 흔히 카톨릭의 전유물, 오랜 논쟁의 주제들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성례전은 신자들에게 은혜를 전달해 주고 신앙을 강화시켜 주는 외적/물적 의식이나 표징이라고 말하며, 초기의 성례전 신학, 성례전 효

력에 대한 도나투스 논쟁, 성례전의 다양한 기능, 성만찬의 실재적 임재의 문제, 마지막으로 급진적 종교개혁가들이 제기한 유아세례에 관한 논쟁을 서술한다.

17장 ‘기독교와 세계의 종교들’에서는 1세기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아주 미미한 종교로 시작하여, 보편성, 문화적 적응성 및 선교적 메시지를 바탕으로 서구 유럽을 지나서, 전 지구로 뻗어 나가 거의 모든 지역에 뿌리를 내려 세계의 주도적 종교로 성장한 기독교가, 오늘날의 다원화되고 다종교화된 사회에서 다른 종교와 어떻게 평화롭게 관계를 맺으며 공존할지를 다룬다. 서로의 다원성을 인정하면서도 기독교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신학적 해석을 찾아가는 것이 오늘날의 신앙인들과 신학자들에게 요구되는 자세임을 상기시킨다. 또 인류 역사만큼이나 다양한 종교이론들을 다루고 있는데,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탐구가 그 최종 고안물인 ‘종교’를 낳았지만,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자기 계시는 ‘신앙’에 이르게 한다는 칼 바르트의 주장이나, 본회퍼가 주장한 인간들의 사리에 맞지 않고 신뢰할 수 없는 개념과 그 종교성에 근거한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에 근거한 ‘종교성 없는 기독교’ 등, 그들이 자유주의 신학과 다른 종교이론들을 비판해온 내용들과 그들에 대한 오해들이 소개되었다. 아울러 기독교인으로서 자기 신앙의 정체성을 유지하며 타종교를 이해/대화하려는 최근의 삼위일체론적 신학의 대두 등이 소개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다른 종교를 바라보는 기독교의 시각들(배타주의, 포괄주의, 다원주의)을 소개한다.

18장 ‘마지막 일들:종말론/기독교의 희망’은 1세기 기독교와 함께 시작된 종말론에 대한 교리적 발전들(신약성경, 바울 신학, 아우구스투스의 두 도시론을 포함하여)과 그에 대한 근대의 비판/반대(계

몽주의, 마르크스주의 등) 및 20세기의 종말론의 재 발견 등(칼 바르트와 몰트만의 희망의 신학, 한국교회에 큰 영향을 주었던 세대주의적 종말론 등)을 소개한다. 끝으로 ‘마지막 일들’에 대한 기독교 가르침의 구체적 내용(지옥, 연옥, 천년왕국, 천국)을 소개하고 있다. 기독교인으로서 어떻게 희망과 책임감을 느끼고, 올바른 종말에 대한 이해와 준비를 할 수 있을지를 안내하는 내용으로 이장을 마무리한다.



문화산책

김상보 장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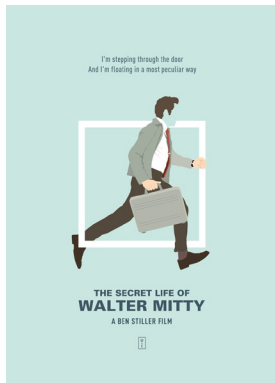


The Secret Life of Walter Mitty <PG> 2013 Adventure/Comedy 1h 54m

요즘같이 다사다난한 시대에 걱정거리도 많고 계획은 예측한 대로 흘러가지도 않아 속상한 일이 많은 것 같아 힐링, 즉 치유와 회복을 잠시나마 맛볼 수 있는 영화 한 편을 소개해 드립니다. 한국어 제목은 “월터의 상상은 현실이 된다”며 2013년에 개봉된 영화입니다. 주인공 월터의 공상과 적절한 CG 효과, 중년층을 대상으로 한 듯한 배경음악 그리고 이제는 지난 과거인 라이프 매거진, 사진 필름 등으로 약간의 향수도 느끼게 하는 작품입니다.

월터는 이제 인터넷 세상이 도래함에 따라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는 한때 역사와 전통으로 미국 역사를 가로지르던 “라이프” 매거진의 필름 자산 관리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일

찍 돌아가신 아버지로 인해 어머니와 여동생을 부양하느라 결혼도 못하고 개인적인 생활도 없이 그저 하루하루를 담담히 받아들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단 하나 즐거움이 있다면 혼자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공상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와 오랜 시간을 함께 작업했던 세계적인 사진작가 손 오코넬이 라이프 잡지 마지막 커버를 장식할 사진이 담긴 필름을 보내왔지만, 그가 말한 #25 필름은 어디로 사라졌는지 보이지 않습니다. 라이프 매거진을 온라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을 위해 들어온 테드의 닙달질이 시작되고 월터 역시 정리하고 대상임은 의심의 여지가 없지만 늘 그랬듯 월터는 묵묵히 받아들이고 필름을 찾는 본연의 임무를 해나갑니다. 마음 한쪽에 호감은 있지만, 자격지심으로 다가가지 못하는 직장 동료 세롤의 권유로 #25 필름을 제외한 다른 필름을 살펴보던 중 한 장의 사진이 사진작가 손의 행선지에 대한 힌트를 제공합니다. 바로 선박의 이름이 바닷물결에 보이고 그 배는 그린란드로 향하는 배입니다. 미국 바깥은 나가본 적도 없고 일상을 벗어나는 일탈이라곤 홀로 상상의 나래를 펼치는 것뿐이었던 월터는 그동안 배우자를 찾기 위해 등록해 둔 eHarmony 담당자의 “당신 프로필을 돋보이기 위한 경험이나 모험이 하나도 없다”는 말을 곱씹어 보며 고민을 합니다. 자기가 맡은 일, 라이프 매거진 마지막 호의 커버 필름을 찾는 일을 위해 무모하게도 월터는 일생에 처음으로 그린란드로 여행을 떠납니다.



누크(Nuuk)에 도착한 월터는 인근에 하나뿐인 주점을 찾아 손의 행방을 묻고 그가 지금 어느 배에 올라타 아이슬란드로 향했다는 말을 듣습니다. 그 배를 타려면 지금 당장 저술 취한 조종사의 헬리콥터를 타야 합니다. 하늘은 먹구름이 가득하고 도저히 위험해 보이는 이 모험을 감당할 수 없는 월터는 때마침 상상의 나래를 피고 짝사랑하는 세롤이 불러주는 노래 “Space Oddity”를 떠올리며 용기를 내어 또 한 번 무모한 모험을 강행합니다. 우여곡절 끝에 배에 올라타는 데는 성공하지만 이미 손은 아이슬란드로 출발한 후였습니다. 배 안에서 발견한 또 하나의 단서로 손은 현재 폭발위험이 있는 화산 Eyjafjallajökull (에이야프들라이외쿠틀)로 향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지만 간발의 차이로 비행기 위에서 촬영 중인 손을 면발치에서 보긴 하지만 화산이 폭발함에 따라 어쩔 수 없이 포기하고 뉴욕으로 돌아옵니다. 필름을 찾지 못한 월터는 테드에 의해 해고를 당하게 되고 좌절한 월터는 어머니 집에 손이 방문했었다는 얘기를 또 상상의 나래를 펼치느라 듣지 못합니다. 그 와중에 손이 현재 멸종 위기인 Snow Leopard (눈표범)를 촬영하기 위해 히말라야산맥 어딘가에 있다는 소식을 접하고 또 한번 무모한 도전을 합니다. 당시에도 내전 중이던 아프가니스탄을 지나 히말라야에 도착한 월터는 드디어 학수고대했던 손을 만나게 됩니다. 반대쪽 산을 향해 카메라를 고정시키고 기다리던 손에게 월터는 왜 #25 필름이 없느냐고 따져 묻고 그 필름은 바로 손이 월터 어머니 집에 남겨두었던 지갑 선물에 들어 있음을 알게 되는 순간 전설적인 동물 눈표범이 나타납니다. 하지만 손은 사진을 찍지 않고 그냥 바라봅니다. 오랜 시간을 기다려 겨우 만난 눈표범을 왜 촬영하지 않는지 묻는 월터에게 손은 이렇게 말합니다. “Beautiful things don’t ask for attention.” 진정한 아

름다운 것은 결코 관심을 바라지 않는다. 결국 #25 필름을 손에 넣은 월터는 더 이상 상상만 일삼는 소심한 시민이 아닌 고난과 역경에 굴하지 않고 원하는 것을 얻는 자신감이 충만한 영웅이 되어 있습니다. 필름 이미지는 보지도 않고 자신을 해고한 라이프 매거진으로 찾아가 필름을 던져주며 자신의 마지막 임무를 완성합니다. 세물이 무슨 사진이었냐고 묻지만 보지도 않았던 월터는 단지 자신의 임

무를 완성한 것에 만족합니다. 그렇게 둘이 길을 걷다가 발견한 라이프 매거진의 마지막 호 커버 페이지의 사진은...



이 영화의 원작은 제임스 서버의 1939년 단편소설입니다. 원작은 소시민 월터가 성격이 강한 아내를 따라 쇼핑을 하는 와중에 혼자 속으로 외과 의사, 군인, 암살자로 살아가는 다른 인생을 몽상하는 이야기입니다. 당시 상당한 인기를 끌었던 이 소설에 의해 월터 미티라는 이름은 몽상가(Daydreamer)의 대명사로 아메리칸 헤리티지 사전에 등록되었습니다. 1945년 이 소설을 원작으로 하는 영화가 제작되었습니다.

또한 이 영화에 등장하는 라이프 사의 장면은 실제 라이프 사의 사무실과 로비에서 촬영되었습니다. 영화에 등장하는 사진들 역시 라이프 사의 아카이브에서 직접 고른 것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영화는 실제 필름으로 제작되었습니다. 2013년에 개봉한 영화이니 디지털카메라로 촬영할 수도 있었겠지만, 영화 속 사진작가 손처럼 실제 필름 카메라를 썼다고 합니다. 실제 영화 흐름상 사진작가 손의 필름을 찾기 위한 월터의 여정은 그린란드, 아이슬란드, 히말라야로 이어지는 데 필름으로 담아낸 아직 인간의 손이 많이 닿지 않은 대자연 풍광은 슬프도록 아름답게 비칩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렸듯이 아날로그에 대한 오마주로 대부분 필름을 사용하고 CG를 최소화했다고 하고 아래 보시는 월터가 아이슬란드의 바다에 뛰어드는 장면은 실제 아이슬란드 바다에서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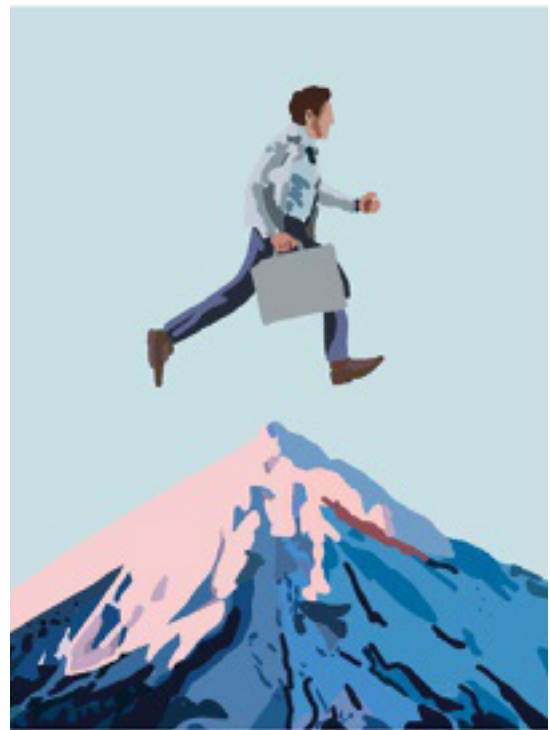


이 영화의 백미로 보아도 좋은 장면 중 아이슬란드의 도로를 따라가는 월터의 스케이트 보드를 타는 장면은 당연히 압권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중간중간 다른 영화의 패러디로 웃음을 끌어내기도 하고 늘 애쓰는 장남을 위해 마음을 쓰시는 엄마의 무심한 듯한 모습은 눈물을 자아내기도 하고 적절한 배경음악으로 용기를 내는 월터를 나도 모르게 감정이입과 함께 응원하게 되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 하루하루를 살아가느라 절제해야 함은 물론이고 가족을 위해 포기해야 하는 것들도 있고 사회적 위치에 자신을 맞추기 위해 내가 아닌 나로 살아가는 요즘 우리에게 많은 공감을 일으키는 영화라 봅니다. 불평불만을 표하지 않고 묵묵히 삶을 감내해 가는 월터의 모습은 어쩌면 우리 모두의 모습이 아닐까 합니다. 우리 역시 행동을 옮길 수는 없지만 나름대로 상상으로 혼 내주고 싶은 사람 혼도 내주고 가지 못한 곳을 텔레비전이나 컴퓨터로 보며 위안을 삼기도 합니다. 월터는 영화 엔딩 부분에서 손의 #25 필름을 들고 라이프 사무실을 찾아 자신을 해고한 테드에게 “우리 회사의 모토가 뭘지 아느냐”고 묻습니다. 어물거리던 테드는 “아임 러빙 잇”라고 대답하지만 이건 맥도날드 광고 문구입니다. 라이프 매거진의 모토, 손이 월터에게 선물한 지갑에 새겨져 있고 세롤이 이 모토가 멋있어서 입사했다고 하는 그 모토는 다음과 같습니다.

“To see the world, things dangerous to come to, to see behind walls, draw closer, to find each other, and to feel. That is the purpose of life.” 번역하자면 “세상을 보고, 무수한 장애물을 넘어, 벽을 허물고, 더 가까이 다가가 서로를 알아가고 느끼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목적이다.”

어두컴컴한 사무실에서 소심한 삶을 살아가던 월터는 자신의 임무를 위해 험난한 역경과 맞서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두려움에 대항하고 자신을 찾고 사랑을 찾으며 진정한 삶의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세롤의 말처럼 삶은 어쩌면 용기를 가지고 알지 못하는 미래로 한 걸음을 내딛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별것 아닌 인생일 수도 있지만, 충분히 살아갈 만한 가치가 있다는 메시지와 지친 심신을 달래 줄 영화 “The Secret Life of Walter Mitty”를 추천해 드립니다.



간증문

영유아부를 섬기며

영유아부 최민정 부장 집사



생각해보면 참 귀하고 귀한 것이 생명임을 깨닫습니다. 결혼을 통해 한 가정을 이루며 얻은 자녀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선물임을 세월이 지날수록 자녀가 커갈수록 더 깊이 깨닫게 됩니다. 어린아이들을 마주할 때면 그 소중함의 은혜가 더 선명해지는 듯합니다.

영아부 봉사를 권유받고 결정을 하기까지 며칠의 시간을 보내는 동안 우리 아이들 키울 때가 참 많이 생각이 났습니다. 옛 기억을 생각 하다 보면 늘 부족했던 기억들만 오래 기억에 남아 미안함과 아쉬움이 가슴에 긴 여운으로 남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성장 과정의 변화가 가장 빠른 영유아기 때에만 누릴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을 힘든 육아로만 여겼던 것 같습니다. 좀 더 안아주고 좀 더 기도해 주고 좀 더 주님의 사랑으로 품었어야 했던 그 옛날의 아쉬움을 영유아부를 통해 만나는 소중한 아이들에게 나누며 베풀기를 다짐하며 섬기기를 결심하게 되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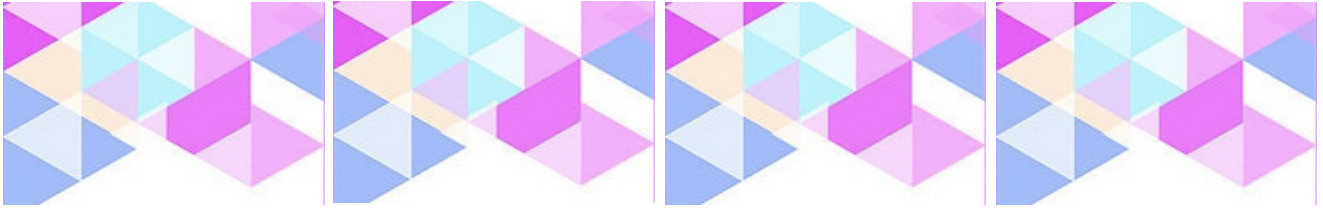
습니다. 팬데믹으로 그리 길지 않은 봉사의 시간이었지만 짧은 기간 동안 만났던 아이들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익숙하지 않은 환경에 아직은 엄마와 떨어지기가 두려운 아이들.. 이제 겨우 뭔가를 짚고 서는 아이들.. 아직은 걷는 것 보다 두 손과 발이 더 빠른 아이들.. 그 작은 입으로 나오는 언어들.. 서로 다른 아이의 찬양과 율동을 유심히 바라보는 아이들.. 그래도 열심히 전도사님의 율동을 따라 해 보려는 아이들.. 엄마 아빠의 무릎에 안겨 부모님의 두 손에 포개어져 기도드리는데 그 작은 손.. 예배 후에 시간이 되어 찾아 와준 아빠 엄마의 얼굴을 알아보며 환하게 웃는 아이들..이렇게 예쁘고 맑고 여리고 순전한 아이들의 모습을 떠올리니 참 귀하고 소중하게 여겨집니다. 전도사님과 선생님들과 다 함께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과 주님의 사랑을 나누었던 그 시간들이 참 소중했음을.. 그러기에 더 그리워집니다.

주일 날 잠깐의 몇 시간 동안 그 어린 생명들을 맡겨 주심에는 깊은 하나님의 사랑의 뜻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 뜻을 다 알기에는 많이 부족하지만 어린 영혼들을 향한 주님의 사랑을 조금씩 알아가며 저 또한 성숙해지는 은혜가 있으리라 믿으며 시편의 말씀처럼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들과 같으며 우리의 딸들은 궁전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잇돌들과 같으며’ 처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굳건하고 아름답고 지혜로운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건강하게 잘 자라주기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섬기다 보면 지칠 때도 있겠지만 ‘오늘 더 사랑해’ 라는 어느 책 제목처럼 제 마음 안에 그 사랑 잃지 않기를 또한 간절히 소망해봅니다.



▲▲▲▲ 간 증 문 ▲▲▲▲



주와 함께 걸어온 길 조은규 집사



새벽에 동생들의 손을 잡고 찬양하며 지나가던 면목동 시장 거리, 어린이 여름 성경학교를 가는 길...

1980년 12월 고등학교 예비고사를 마친 후 꿈에서 만난 예수님, 자비하신 주님의 음성은 귀로 들리지 않고 나의 마음으로 들려왔습니다. 꿈속에서 나의 간절한 기도 중에 나에게 오셔서 나의 기도가 모두 응답받는 날 다시 오라 하고 가셨습니다. 의심이 엄청 많은 나에게 절대적인 증거를 주셨습니다. 나는 주님을 보았고 음성을 들었고 주님은 나를 만지셨고 꿈속에서 올린 나의 모든 간절한 기도에 응답해주셨습니다.

대학 시절에는 주일학교 교사로, 성가대로, 또 청년부에서 섬기며 아르바이트로 용돈을 벌어 쓰면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고등학교 영어 선생님이시던 아버지의 덕으로 여러 군데서 선이

들어왔습니다. 미국 이민을 준비하고 있었을 때였기에 미국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오산리 순복음 기도원을 찾아서 가게 되었고, 미국 이민 오기 전 1년간 말씀 묵상과 기도 생활로 준비시키셨습니다. 말씀 묵상과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또한 가지의 기도는 나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기도했습니다. 저는 미국에 오기 전에 꿈에서 남편을 보았고, 사랑이 넘치는 집에서 소녀들이 재봉틀로 옷을 만들며 선생님과 함께 사는 것을 보았습니다. 언젠가는 청소년들의 제자 훈련을 시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1987년에 남편을 Lanham, MD에 있는 미국 교회에서 만나고 기도와 말씀으로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부모님의 반대로 어렵고 힘겨운 시간들을 보냈지만, 주의 은혜로 지낼 수 있었고, 지금은 저의 아버지께 총애받는 사위가 되었습니다. 남편은 개성에서 홀로 피난 오신 어머니와 얼굴도 보지 못한 미국 군인 경찰이셨던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나... 남편의 선택으로 인천의 보육원으로 보내지고 그곳에서 양아버지를 만나서 13살에 미국으로 입양 왔습니다. 입양가족은 3남매가 있었고 남편과 같은 혼혈아를 3명 입양하셨습니다. 아주 믿음이 단단한, 넉넉한 형편이 아니었지만 모든 것을 나누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독일로 떠나셨고 남겨진 가족은 많은 고난을 겪었고 고등학교에 다니던 남편 또한 많이 방황하고 힘든 시간을 보내며 주님을 만났습니다.

살아온 환경과 성격의 차이로 20여 년간의 삶은 돌밭을 맨발로 걸어 온 듯합니다. 처음 10여년은 한 달에 한 번씩 밤을 꼬박새우며 말다툼을 했습니다. 너무 지친 어느 날, 화요 성경 공부를 참여했는데 목사님 사모님께

서 “ 모든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작은 싸움부터 큰 전쟁까지” 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받고 나의 전쟁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그 이후에는 밤을 새우며 싸우는 일이 없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아침에 일어나 지혜의 말씀 달라고 기도하고 성경 말씀을 읽고 주시는 말씀을 마음에 담고 하루를 시작하면 남편과 다투지 않고 평안한 하루가 되는 것을 깨닫고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말씀을 하루에 한 장씩 읽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말씀 묵상은 나의 삶의 필요함으로 이어졌습니다. 하루의 일과 후에도 피곤하지 않고, 같은 12시간이 지났지만 20시간의 일을 감당할 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하늘의 비밀한 것을 찾고 깨달아서 지금 내가 밭 딛고 있는 이곳에서 누리며 사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말씀 묵상과 순종의 삶으로 살면서 하나님은 지혜의 말씀으로, 또 꿈으로 저를 인도하셨고 질문과 답으로 저를 지금도 가르치고 계십니다. 많은 꿈들로 앞으로의 일을 보여주시기도 하고 지혜의 말씀으로 힘들고 방황하는 나의 삶을 위로하시고 인도하셨습니다. 성격이 급해서 화를 억제하지 못하고 살고 있을 때 잠언 19:11 말씀을 접하고 질문하기 시작했습니다. “ The discretion of a man makes him slow to anger”. Discretion 이 무엇인가요? 운전하면서, 이를 닦으면서 3일 동안 질문했습니다. 3일만에 들린 음성 “Discretion = Understanding” 아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상대방을 이해하면 화가 날 이유가 없었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할 수록 주님의 지혜를 구하는 삶으로 이어졌기에 지금 이 순간에도 보여주시고 가르치십니다. 허리 척추 수술, 유방암수술, 남편의 잦은 외국에서의 직장 일로 많이 아프고 힘든 날들이었지만 주님과 함께함으로 이기고 승리할 수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나서 지난 10여 년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

며 하늘의 은혜와 평안으로 지내왔습니다.

남편의 갑작스러운 암 선고에 많은 기도와 말씀 묵상과 예배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마음의 아픔이 오랜 시간을 지나며 몸의 병으로 나타남을 깨닫고 모든 일상을 멈추고 주님 앞에 회개와 말씀과 건강한 식생활로 지내고 있습니다. 평생 응급치료하는 Paramedic 일을 하면서도 알지 못하였던 것들을 열심히 공부하고 배움의 시간들로 감사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암세포는 우리의 피에 산소가 부족하여 돌연변이 하여 만들어진 세포이어서 유산소 운동으로 산소의 농도를 높이고 우리의 면역력을 살리면 암세포는 살 수가 없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다니엘의 단식과 같이 유기농 채식과 과일 식으로 물 섭취와 땀을 흘리며 운동함으로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우리를 위하여 만들어 놓으신 과일, 야채, 씨(곡류, 콩, 견과류)로 식사를 하면서 정신 집중이 잘되어 골프를 잘 치고 있고요, 불안·초조함이 없어졌습니다. 이 불의 연단의 시간을 지나며 우리를 가르치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베드로 전서 4:12-13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 하려고 오는 불 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하심이라.

저의 마음에 새긴 성경 말씀 구절, Philip-
pians 4:4-7 Rejoice in the Lord always
and again I say, Rejoice. Let your gen-
erosity made known to all man for God is
near. Do not be anxious in anything, but
by prayer and supplication with thanks-
giving let your request be made known
to God. The peace of God, which sur-
passes all understanding, shall keep your

hearts and minds through Christ Jesus.
감사함으로 기도에 응답하심을 믿고 기도합
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내어놓고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머릿속
에 그리며 기도합니다. 말씀 묵상과 암송은
나의 삶의 큰 힘이 됩니다.

기도의 응답을 받는 최고의 방법은 약속의 말
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임을 깨닫고 나누기
를 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
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
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데
살로니가 전서 5:16-18). 하나님 저는 항상
기뻐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혼자서는 불가능
합니다. 도와주소서, 하나님 저는 항상 기도
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혼자서는 불가능합니
다. 도우소서, 하나님 저는 항상 감사하며 살
기를 원합니다. 혼자서는 불가능합니다. 도우
소서. 기도하는 가운데 언제인지 모르지만
나의 삶은 말씀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경
험할 수 있습니다.

정확하시고 세밀하시고 자비하신 선하신 목
자 아버지입니다. 우리의 안에서 항상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좋으신 아버지이십니다.
추상적으로 멀리 계신 것 같은 것은 우리가
아버지의 말씀을 떠나서 내 의지대로 살 때
에 그렇게 느껴집니다. 메마른 광야의 삶입
니다. 말씀 안에서 살 때에 주시는 기쁨과 평
안과 사랑을 깨달으면 세상의 모든 것이 부럽
지 않고 필요치 않고 천지를 소유하시는 하나
님의 사랑에 흠뻑 취한 귀한 자녀로 상속권을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사람의 말로 표현하
기 어려운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을 통하여 깨
닫고 받고 누리시기를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시간들이 주의 은혜였음을 고백
합니다. 살아계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를 증거가 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따르릉...”

“누구신가요?”

“네, 이숙영 권사인데요, 부탁 말씀을 드리려고 전화했어요.”

“네? 무슨 부탁이신가요?”

“이번에 저희가 ‘하루’ 라는 제목으로 짧은 영화를 만들려고 하는데, 모인 분들이 집사님을 주연으로 추천하기로 정해서 함께 해주십사 말씀드리려고요”

예상 못 한 부탁에 너털웃음밖에 나오지 않아 농담으로 알고 몇 마디로 가볍게 거절하면서도

‘아니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어린 시절 학예회 발표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에게 배우라니요? 안됩니다. 교회에서 시키는 건 웬만하면 저도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려고 노력합니다만 이건 아니죠. 턱도 없어요. 무슨 영화 촬영이란 말입니까?’

라고 하는 감정 실린 말이 입천장까지 올라왔지만, 그 순간 어떤 음성이 들리는 듯했습니다.

‘야야, 뭐 네가 잘나서 뽑았겠냐. 오죽하면 너한테 어려운 부탁을 하겠니. 여러분들이 만나서 한참을 고민하고 결정한 일일 텐데 네가 고사시키면 그분들은 또 얼마나 힘들어하겠니?...’

“언제부터 시작하시나요?”

참으로 신기한 일이었습니다. ‘이건 아니지’ 라는 생각이 강력하게 들면서도 거절을 못 한 것이 참으로 신기했고 그렇게 영화 ‘하루’ 라는 십자가를 지게 되었습니다.



직업상 콜퍼스 크리스티에서 2주에 한 번씩 주말에 오스틴을 왔다 갔다 하는 생활을 하는 덕분(?)에 가끔 만나 영화 촬영을 위한 준비와 연습을 하는 동안에도 영화를 본 적만 있지 촬영한 적이라곤 인생을 통틀어 한 번도 없는 데다, 2시간씩 지속하는 여름 강의로 목이 아픈 상황이어서 ‘이건 아니다...’ 싶은 생각이 꿀떡같이 들었습니다. 한가지 다행인 것은 요즘은 잘 쓰지 않지만 ‘하루’ 에 등장하는 유 장로님의 걸쭉한 갱상도 사투리는 어린 시절 귀에 못이 박이게 들었던 말들이라 사투리로 말하는 대사는 크게 문제가 없었으나 극본을 쓰신 양민희 집사님과 시작된 리허설 시간부터 시작된 발음이나 속도 조절, 표정 연기에 대한 구박(?) 들, 그리고 나이가 들면서 깜빡거리는 기억력으로 인해 엄청난 고난의 행군이 기다리리라는 것을 직감하였습니다. 게다가 이연숙 집사님께서 식사하는 장면을 위해 어디서 찾으셨는지 ‘하정우의 후르르 아그작’ 이라는 유튜브 영상까지 보내주시며 식사 장면을 연습하라는 눈물겨운 십자가를 지게 하셨습니다. 그나마 믿을 곳은 깜짝 출연해주신 김준섭 목사님의 물 흐르는 듯한 유연한 연기와 또 함께 연기를 해야 했던 최병영 집사님의 다그치고 하대하는 핏대 세운 유 장로의 ‘열정적인’ 대사에 대한 또박또박하고 침착한 대응이었습니다. 연습 중에도 “죄송하다.” 는 말씀을 몇 번 드릴 때마다 “전혀 신경 쓰지 마시라. 연기에 몰입하는 게 더 도움이 된다.” 라고 하시며 오히려 위로해 주시는 것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어쨌든 돌짜발같은 길을 예감하면서 콜퍼스로 차를 몰아 내려갈 때마다 ‘안 되겠다고 말씀을 드려야겠다...’ 라는 생각을 수도 없이 했지만,

‘그럼 미리 말씀을 드렸어야지, 이제 와서 어찌란 말이나?’

라고 누군가가 저에게 핏대 세운 컷속말을 하는 듯하였고, 또 7월 11일 주일예배 시간에 목사님께서 ‘브살렐처럼 정성을 다해 주님을 섬겨야 한다.’

라는 주제로 설교 말씀을 하시고 게다가 김상범 전도사님께서 한술 더 떠서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를 예배 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라고 찬양하시며 거듭 순종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영화, ‘하루’를 위한 스트레스 충만한 하루하루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촬영일이 다가오면서 불안과 스트레스로 의기소침해 있었던 어느 날 저녁, 하나님의 처절하고 엄중한 음성이 들리는 듯하였습니다.

“엄 집사는 들으라!

내 너를 불쌍히 여겨 경도의 어느 골목길에서 대취하여 객사하려 하기로

미국으로 불러 너와 네 가족을 널리 구원하였거늘

네 어찌하여 믿음의 걸만 미장이질하고 속은 그리도 샷되었느냐?

네 어찌 교회에서 부여한 직위와 교의를 구별치 못하고 믿음 생활에 전념치 아니하느냐?

예배를 통해 들려주는 말씀을 네 어찌 호도하여 이웃을 사랑치 않고 오히려 업신여기고 목자로 섬기라 세웠거늘 말씀을 멀리하고 말씀 속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여 흑세무민하느냐?

너는 성경의 말씀을 기롱하고 업신여겨 시습치 아니하고 오히려 미련의 도로 삼았고 마음을 비워 나를 영접한 적이 있으나 우상으로 다시 채워 내가 안주할 곳이 더는 없으며 네 마음에 믿음의 형만 갖추었을 뿐 믿음의 틀은 사라져 내 마음이 처연하고 아리는구나

이제 다시 나를 영접하고 순종함으로 영생의 샘에 네 목을 축이라.

너의 남은 날들을 지극히 긍휼히 여기는 나의 마음을 헤아려 신명으로 나를 섬기라.

스스로 남보다 높아지려는 마음을 낮추고 낮은 곳에 머물러 겸손할 줄 알며

네 알량한 재주라도 쓰고자 하는 내 마음을 좇아 신앙의 준엄한 요구에 순종하라.”

이러한 주님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하였고 게다가 촬영 전날은 유 장로님의 일갈하는 음성이 귓전을 강타하는 듯하였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니를 쓰시겠다카는데, 아무 쓰잘데기도 없는 니가 무슨 낫짝으로 거절할라카노? 어서 와가 주를 섬기라 마!”

결국 결전의 날은 다가와 7월 17일 아침, 저희 집에서 찍기로 한 영상을 위해 들이닥친(?) 영화 감독 이하 카메라 및 스태프들을 맞이하면서도 등에 흐르는 식은땀은 아침부터 강하게 틀어놓았던 에어컨 바람에도 가시지를 앓았습니다. 영화 전공자이신 동지현 집사님의 감독 아래 영화촬영장을 방불케 하는 카메라와 래일 등이 세팅되면서 그동안 연습한 모든 것이 하얗게 주눅이 들어 사라지는 듯하였습니다. 제발 먹는 장면에서만은 앤지가 안 나게 해 달라고 기도한 덕분인지 식사 장면은 밥 한 그릇으로 마칠 수 있었고 세수하는 장면에서는 마이크 거치대가 없어 한현주 집사님께서 세숫대 옆에 쪼그리고 앉아 마이크를 들고 연기가 끝날 때까지

지 튀기는 세숫물을 온몸으로 받아내시며 열연(?)을 해야 했습니다. 교회로 장소를 옮겨 계속된 촬영에서는 평소에는 하지도 않는 교회 일을 혼자 다 하는 양 찍으며 마침 주말을 이용해 일하시는 장로님, 집사님들을 방해하면서 과연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죄송하고 송구스러웠습니다.

아침 10시부터 시작하여 오후 4시까지 계속된 촬영스케줄로 다음날 입술이 부르트는 불상사가 있었지만, 촬영을 마치면서 모든 촬영을 하루 만에 마칠 수 있어 감사하다며 총감독이신 이숙영 권사님께서 드렸던 기도는 아직도 기억에 생생합니다.



주님의 일을 하다 보면 크든 작든 스트레스를 받지 않을 수는 없는 모양입니다. 특히 주님과 평생을 동행하며 다듬어야 할 거친 돌 같은 마음으로 섬기려다 보면 다른 마음들과 충돌하고 상처를 주는 일은 당연히 일어날 테고 또 일어나야 정상입니다. 마찰이 없으면 그만큼 만남의 강도가 피상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도 간에 불화나 마찰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우리의 부끄러운 낯짝을 감추고 신앙생활을 그만두고 쥐구멍에라도 들어가고 싶은 심정이 될 때가 적지 않습니다.

‘아니, 내가 교회에 시간 바치고 돈 바치고 땀 흘려 봉사하는데 돌아오는 게 고작 이런 건가? 기도와 예배를 드려도 나는 변화될 수 없는 존재인가?’

이런 마음이 든 적이 스스로 많이 있어 부끄럽지만, 혹시 이런 마음이 든 적이 있다면 그래도 가능성이 있는 성도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일날 예배만 드리고 가는 것도 초신자에게는 좋은 일이지만 믿음의 연륜이 늘어나면서 교회 일로 인해 고통받는 일은 더 좋은 일이라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이 무슨 궤변이냐고 하실 분들도 있겠지만 모세의 생을 통해 우리는 그가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자신을 스스로 고통의 길로 내몰았을 때 상상하지 못할 기적들을 경험하고 아마도 생을 마감할 시간에 스스로 만족하며 주님 곁으로 갔으리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인생은 반전의 연속이며 관계 속에서 성숙하는 오묘한 현상입니다. 신앙생활은 하지만 어떤 성도와도 관계가 없고 교회에 이야기할 상대가 없다면 교회에서 얻을 수 있는 백중

에 받은 놓치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인간은 매일 누군가를 만나 한마디라도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그때에야 비로소 우주에 흐르는 에너지가 나에게도 주입되고 나도 내 속의 에너지를 타인과 나누면서 건강이 회복되고 삶의 활력이 생기는 법입니다. 우리가 듣는 타인의 음성과 눈에 비치는 모습, 그리고 손과 마음으로 느끼는 타인의 존재감은 모두가 주님께서 선물하신 회복의 에너지입니다. 만남과 대화는 무엇보다 소중한 보약이라는 말이 있지요. 특히나 만나서 함께 나눌 수 있는 공동의 목표와 삶, 그리고 기쁨이 있다면 더할 수 없는 회복과 생의 희열을 느끼게 됩니다. 병원에 가서 맞는 주사 한 대보다 서로 어울려 일하다 갑자기 터트리는 폭소야말로 세상에 없는 보약이라는 말이죠. 물론 교회에 나간다고 해서 생의 모든 일이 술술 풀리는 일은 없겠지요. 그러나 교회는 나가지면 주위에 언제든 만나 이야기 나눌 성도들이나 카톡으로라도 인사를 보낼 분들이 없다면 한 번쯤 신앙생활을 돌아보아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봉사로 인해 나가는 물질이나 힘든 시간과 흘리는 땀보다 봉사하며 맺어나가는 관계로 얻는 보상이 한배 두 배, 아니 열 배는 더 크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나만의 동굴에서 나와 주님을 마음과 몸으로 섬겨봅시다. 내 속과 마음을 깨끗이 하여 세상 즐거움은 조금 줄이고 성냄과 분냄을 다스리며 모여 타인을 욕하지 말고 당 짓는 일을 스스로 돌아보아 회개합시다. 큐티를 통해 내 몸과 마음을 성결히 하여 성령의 충만을 받아 주님의 작은 부르심에 귀 기울이고 순종함으로써 봉사자의 반열에 스스로 올라, “착하고 순한 종아, 네가 수고하였다.” 하실 주님의 음성을 사모하는 삶으로 나가봅시다. 그리하면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주님께서 형용할 수 없는 복을 주시고 마음의 평안, 나아가 내 가족의 믿음까지도 모두 책임져 주시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청년부 전해나

간증문기고 부탁을받고 이번에는 어떤 간증을 나누면 좋을까 고민하고 기도했다. 이번엔 일상에서 크고 작은 일들을 하나님과 어떻게 대화하고 응답받으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지를 나누어보려고 한다. 언젠가 김은현 사모님과 일대일 양육을 할 때 사모님께서 하나님을 경험한 일 중 기억에 남는 순간들을 나누라고 하셨다. 그때 나는 내가 느꼈던 가장 신비하고 특별한 경험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나눴는데 사모님은 일상생활에서 만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나누셨다. 예를 들어 여유가 없이 지내고 있으시던 때 그날따라 정말 먹고 싶은 음식이 있으셨다고 하셨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통해 그 음식을 먹게 해주셨을 때 하나님의 섬세하심과 자비로우심, 사모님을 향한 사랑을 느낄 수 있다고 하셨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일상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사모님의 소망이라고 하셨다. 사모님과 그의 나눔을 통해 나도 일상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누리기 시작하면서 내가 만난 하나님을 영적 가족들과 나누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알게 되었다. 또 일상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보니 내가 얼마나 그동안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많은 사랑의 사인을 놓치고 있었는지 알게 되었다. 예를 들어 봄이 올 때 우리가 풀과 꽃내음, 내려

앉는 햇볕을 가만히 느껴보면 봄이 오고 있음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지만 별로 신경 쓰지 않고 바쁘게 지나다가 문득 생각해 보면 봄이 벌써 왔구나! 나도 모르는 새에 왔네 하는 것과 비슷한 것 같다. 사랑하는 것에 관심을 두면 그 대상에게서 오는 사랑도 받을 줄 알지만, 사랑한다고 생각하는 대상에게 무관심하다면 사랑을 아무리 보내와도 우리는 알아차리지 못할 것 같다.

한창 대학생 때 하나님과 뜨거운 관계를 누리던 때가 있었다. 그때는 UT 캠퍼스의 나무와 꽃만 봐도 말하지 못하는 피조물들이 온몸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것이 느껴졌다. 나의 모든 순간은 하나님 안에 있었던 것 같다. 나는 하루에도 몇 번씩 하나님께 여러 가지 질문을 드렸다 ‘하나님 동성애가 정말 죄인 건가요?’ ‘하나님 저는 이 사람이 정말 미워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런데 정말 신기하게도 일주일 동안 질문했던 모든 것들이 그날 주일 설교 말씀을 통해서 응답하고, 읽는 말씀을 통해서 응답되었다. 동성애가 어떻게 창조 목적에서 벗어나는지 궁금해했던 그 주에 설교 말씀을 통해 알려주시고, 내가 미워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마태복음 18장 23-35을 통해 내가 하나님 앞에 훨씬 죄지은 사람인데 주님께 용서 받았으므로 그 감

격과 기쁨으로 나에게 잘못된 사람을 너그러이 용서해야 한다고 타일러주셨다. 우리는 질문만 던지고 답이 오든 말든 그렇게 신경 쓰지 않을 때가 많은 것 같다. 예를 들어 하나님은 매주 설교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응답을 주고 계시는데 질문만 던져놓고 하나님의 응답을 경청하지 않아 답을 주셨음에도 놓치는 경우가 생기는 것처럼 말이다. 그런데 하나님과 가까운 순간들을 생각해보면 모든 신경이 하나님을 향해있어서 내가 하나님께 고백하고 요구하는 output보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input에 더 집중할 수 있었던 것 같다. 그렇게 나는 하나님과 매일 대화하며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경험할 수 있게 되었다. 시간이 지나 작년 여름 5월 코로나가 극성을 부리기 시작하던 때 나는 한국으로 들어와 재택근무를 하고 있었다. 계약직이었던 터라 6월이면 계약 기간이 만료가 되는 상황이었다. 그래서 한국에서 직장을 잡아 부모님과 가까이에서 지낼지 미국에서 다시 일자리를 잡을지 고민하며 기도하고 있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직장을 찾지 말고 기다리라는 마음을 계속 주셨다. 처음에는 이게 말이 되나 싶었다. 직장을 찾지 말라고 하시다니? 내가 게으르고 편하게 지내고 싶은 마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로 잘못 들리는 건가? 싶었다. 부모님께도 말씀드리니 걱정하시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맞는지 기도하며 잘 분별하라고 하셨다. 첫 직장의 계약이 끝나가서 빨리 다음 직장을 찾아야 하는데 직장을 찾지 말라는 말씀은 무슨 뜻이 있으신 걸까? 이런 질문들을 계속 하나님께 던졌지만, 하나님은 내가 피할 수 없게 또 확신이 서게 말씀을 통해 계속해서 직장을 찾지 말라는 마음을 주셨다. 정말 여러 가지 말씀 중 몇 개를 나누자면 예수님께서 처음 행하신 물이 포도주로 변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메시지를 주셨다. 하인들은 말도 안 돼 보이는 일을 순종함으로 인

해서 직접 그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다는 말씀과 함께 정말 말도 안 되어 보이는 것도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다는 메시지였다. 또 리더 모임을 하면서 김상범 전도사님과 청년들에게 이 고민을 나누었던니 김상범 전도사님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셨다고 나누어주셨다. 그러면서 내 인생을 걸고 하나님을 신뢰해보라고, 그러면 놀라운 일을 경험할 거라고 말씀해주셨다. 계속 이렇게 반복해서 하나님은 모든 걸 내려놓는 신뢰를 강조하는 말씀을 주셨다. 지금까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인생을 걸고 한다는 느낌까지는 들지 않았었다. 내 욕심을 내려놓는 정도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았다. 그런데 이 코로나 시국에, 백수에, 부모님 집에서 잠시 얹혀 지내는 나에게 직장을 찾지 말라는 말씀을 순종한다는 것은 정말이지 내 인생을 송두리째 믿음에 건다는 것이었다. 또 부모님께 이 말씀을 어떻게 드려야 될지도 막막했다. 왜 그렇게 하라고 하시는 건지 이유라도 알려주시면 따를 텐데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 한 달 정도를 기도하고 고민하며 마침내 부모님과 할아버지 할머니께 말씀드렸다. ‘하나님께서 제게 이런 마음을 주셔서 기도하고 고민했는데 이런이런 말씀들을 받았어요. 그 말씀들을 붙잡고 믿음으로 직장을 찾아보지 않으려고 해요.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그 어느 누구도 그게 말이 되냐며 혼내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책임져 주실 거라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는 것을 안다고 말씀해 주시고 기도로 지지해주셨다. 그렇게 한국에서 지낸 지 6개월이 지나 이번에는 한국에 남을지 아니면 미국으로 다시 돌아갈지를 선택해야 하는 시간이 왔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국에 머무는 동안 계속 우리 청년부를 사랑하는 마음을 주셨다. 한국에 가기 약 1년 반

전 하나님께서 청년부 기도 모임을 시작하라는 마음을 주셨고 코로나가 터지면서 기도 모임을 줌으로 바꾸어 비대면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 덕에 다행히 내가 한국에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줌을 통해서 계속 기도 모임을 인도 할 수 있었다. 기도 모임을 통해 청년 한 사람 한 사람을 더 아끼게 되었고 이 마음을 통해 하나님께서 오스틴 AKPC 청년부로 나를 다시 부르시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부모님과 아쉬움을 뒤로하고 빈 통장에 이제는 직장도 없고 집도 없는 오스틴으로 그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공동체와 믿음만 바라보고 돌아가기로 결정을 내렸다. 미국으로 갈 날이 2주밖에 안 남은 터라 지낼 곳을 구해야 했다. 고민하던 차에 아끼던 동생이 코로나로 한국에 들어와 오스틴에서 리스가 그냥 나가고 있다며 싸게 해줄 테니 자신의 집에서 지내라고 해주었다. 동생이 갑자기 한국을 간 것이라 그 집에는 음식이며 침대, 접시 모든 필요한 것이 다 그대로 남아있었다. 집값도 아끼며 내가 사야 할 것 하나 없이 주님께서 다 채워주셨던 것이다. 아 할렐루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주님은 반드시 그 상황에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는 분임을 다시 경험할 수 있었다. 정말 주님은 섬세하신 분이시다. 그때 그 감격이 아직도 생생하다. 집을 마련해주시는 것을 경험하면서 다시 하나님께서 나를 오스틴으로 부르신다는 확신이 섰다. 그렇게 나는 다시 미국에 돌아와서 지내게 되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 예비해주심을 경험했지만, 그 과정은 결과를 알지 못하기에 분별하려고 애쓰고 불안에 떨던 순간들도 조금씩은 있었다. 미국에 집이 싼 가격에 마련이 되었지만 결국 직장이 없는 채로 돌아왔고 모아두었던 돈도 한국에서 6개월을 지내면서 다 써 재정이 바닥이 난 상태였다. 이제 미국으

로 돌아와서 집값이며 차 보험, 핸드폰 등 내가 감당해야 할 재정들이 늘어나면서 다시 불안함이 찾아오고 있었다. 그런데 정말 감사하게도 청년부의 귀한 형제님을 통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해주시면서 직장을 찾지 않으면서도 지낼 수 있게 인도해주셨다. 그렇지만 한가지 고민이 더 있었다. 친구의 집 계약이 1월 31일까지라 2월부터는 내가 있을 곳을 구하던지 이곳 리스 값을 전부 다 내던지 해야 했다. 아 주님 언제까지고 백수로 지낼 수는 없을 텐데 도대체 직장을 찾지 말라고 하시니 제가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하고 주님께 기도드리며 메일을 보내고 있었다. 시간이 길어질수록 더 미래가 불투명해 보였고 부모님도 걱정하실 것 같아 마음이 이래저래 참 힘들었다.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기도하며 기다리던 중 계약직으로 일했던 곳에서 새 포지션이 열렸으니 어플라이를 해보라고 먼저 연락이 왔다. 그 순간 ‘아 하나님이 찾지 말라고 하신 이유가 나에게 연락이 옴으로 주님께서 준비해 주신 직장을 알 수 있게 해주시려고 그러셨구나’ 하고 알게 되었다. 아니나 다를까 그 직장에 바로 취직이 되었다. 더욱더 놀라운 사실은 그곳에서 일을 시작하는 날이 딱 2월 1일이었던 것이다. 집값을 어떻게 다 내지 걱정하던 차에, 딱 필요한 때에 주님께서 채워주신 것이다. 정말이지 하나님은 너무나도 어메이징한 분이시다. 게다가 나는 과학을 좋아하고 또 매니지먼트에 관심이 많은데 두 가지를 동시에 할 수 있는 직장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세심하게 나를 위해 이 직장을 준비해주셨는지를 느낄 수 있었다.

지금은 그 직장에서 좋은 상사와 팀원들을 만나 일하고 있고 또 청년부 기도 모임을 계속 인도하며 지내고 있다. 글로는 직장이 없던 이 8개월 남짓이 매우 짧은 시간 같아 보이고, 고민하면 바로 응답이 온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실제로 그 8개월은 내 인생을 송두

리째 주님께 걸어본 고뇌와 불안 속에서 믿음을 선택하는 긴 여정이었다. 주위 많은 친구, 언니 오빠들이 자리도 알아봐 주고 정말 많은 도움을 주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직장을 찾지 말라고 하셔서 기다려보려고 해요.’ 라는 말을 하는 것이 참 어려웠다. 내가 정말 일해 보고 싶었던, 페이가 훨씬 좋은 곳을 제안받기도 했었고 무엇보다 ‘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어떻게 열심히 살 생각을 안 하지?’ 라고 생각할까 봐 더 어려웠다. 그렇지만 내 믿음이 좋아서, 내가 순종을 잘해서 하나님을 믿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귀를 열어 말씀을 듣게 해주시고 반복하여 말씀해주셔서 내가 순종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다. 그리고 전도사님 말씀처럼 정말 이 경험을 통해 나는 작고 큰 모든 결정들을 주님께 먼저 여쭙는 자세를 갖게 된 것 같다.

설교 말씀이 너무 일상적이고 반복적으로 느껴졌던 내 모습이 이제는 설교 말씀에서 또 매일 큐티에서 내가 갖고 있는 질문들과 문제들을 어떻게 응답해주실까 기대하며 듣는 모습으로 바뀐 것처럼 이 간증을 읽으시는 귀한 여러분들도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을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한다. 내 안에 내조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에 예민하게 반응하고 알아차리기 위해 집중하다 보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갈 수 있게 되는 것 같다. 온 우주에 선하신 단 한 분, 공의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께 순종할 때 이 세상에서 부유하게 잘사는 방식은 아닐지라도 매 삶을 하나님께 의지하며 살아가는, 진정한 선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 같다. 무엇보다 재정이 줄 수 없는, 재정이 있어도 느껴지는 불안함을 잠재우는 평안함과 가슴 벅참을 느끼는 삶을 살 수 있다. 우리 AKPC 모든 성도님들과 내가 이 세상에서 선한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사람들로 살아가기를 소망한다.





주일학교

영유아부 (0-36개월) : 이희정전도사
 유치부 (만3-5세) : 박은희전도사
 유년부 (1-5학년) : 이정민목사
 중고등부 (6-12학년)

토요한국학교

교장 : 이성민집사, 교감 : 김호진집사
 교사 : 김예진, 양민희, 이하연,
 함선희, 박성은

영유아부

- ▶ 0-3세의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이 예배에 참석하실 수 있도록 도우며, 아이들이 즐겁고 재미있게 예수님의 말씀과 찬양을 배울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 ▶ 현재 25명 안팎의 영유아가 영유아반에 함께 합니다.
- ▶ 시간표

10:00-10:30	자유롭게 모이는 시간
10:30-11:00	예배 기도, 어린이 찬양과 율동, 교재를 바탕으로 말씀을 배우는 시간
11:00-11:20	간식
11:20-11:40	Activity (생일 어린이가 있는 경우 생일 자녀 축하)
11:40-12:00	어린이 찬양과 율동
12:00-12:20	교재를 통한 공과놀이
12:20-12:45	선생님들과 함께 마무리 (장난감 제자리에 놓기)
12:45-	귀가 시간



2021 어스틴한인장로교회 교육학교 조직도
 (당회 교육 1부 위원회 : 지정인장로)



유치부

▶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 중심적이고, 복음 중심적인 성경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의 사람 (God's People), 세상의 빛(Light of the world)"의 자녀로 성장하여, 하나님 나라가 이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며 자라나게 하는, 그리고 매일의 삶이 예배가 되는 것을 배우게 하여, 모든 어린이들이 하나님의 예배자로 자라도록 돕고 있습니다.

▶ 시간표	10:00-11:10	한국학교
	11:15-12:10	경배와 찬양 (매월 첫주마다 새 찬양 배우고 찬양해요)
		기도송
		말씀선포
		말씀암송
		헌금송 및 기도
		광고 시간 및 환영송
		주기도문송
	12:10-12:40	공과시간
	12:40-	귀가 지도

유년부

▶ 교육 목표 :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벧후3:18)

▶ 시간표	예배시간	11:15-12:10 (2층 소예배실)
	성경공부	12:10-12:30 (2층 각 반 교실)
	성가대	10:00-11:00 (유년부 성가대실)
	찬양팀	10:00-11:00 (유년부실)
	기타반	10:00-11:00 (A/B 반)



2021 어스틴한인장로교회 교육학교 조직도
(당회 교육 1부 위원회 : 지정인장로)

2021 어스틴한인장로교회 교육학교 조직도 (당회 교육 1부 위원회 : 지정인장로)

AKPC

RADIATE YOUTH MINISTRY (청소년부)

And God said, "Let there be light..." - Gen 1:3

VISION

Build up young believers who are committed to Christ and the local church by doing *life* together (i.e., discipleship) to radiate the gospel of Jesus.

WORSHIP INFO

SNL	SUN
Time: 7-9 PM (Time will change to 6-8 PM starting March)	Service Time: 11:15 AM Bible Study: 12:40 PM
<small>*All youth services take place in the youth chapel</small>	

MINISTRY INFO

 **Demographic**
Radiate Youth Ministry serves around 90 students from middle school to high school (6th through 12th grade).

 **Teachers**
Currently there are 14 teachers that serves with the youth. Teachers are always needed for weekly Sunday Bible study! Interested in serving the youth? Contact Pastor Jin Seo.

 **Got Questions?**
Email: soojin24@gmail.com
Phone: (949) 517-8085

토요한국학교

▶ 신앙 교육과 우리나라 말과 글을 교육하는 우리 교회내 학교입니다.

1. 학교비전

- 하나님을 사랑하는 어린이
- 우리나라 말과 글을 사랑하고 할 줄 아는 어린이
- 우리나라 역사와 문화를 사랑하는 어린이

2. 학교정보

- 학기(기간): 봄학기(1월-5월), 가을학기(8월-12월)
- 수업시간: 토요일 오전 10:00 - 오후 1:30분까지
- 수업 내용: 한글 성경, 우리나라 말과 글, 역사 및 문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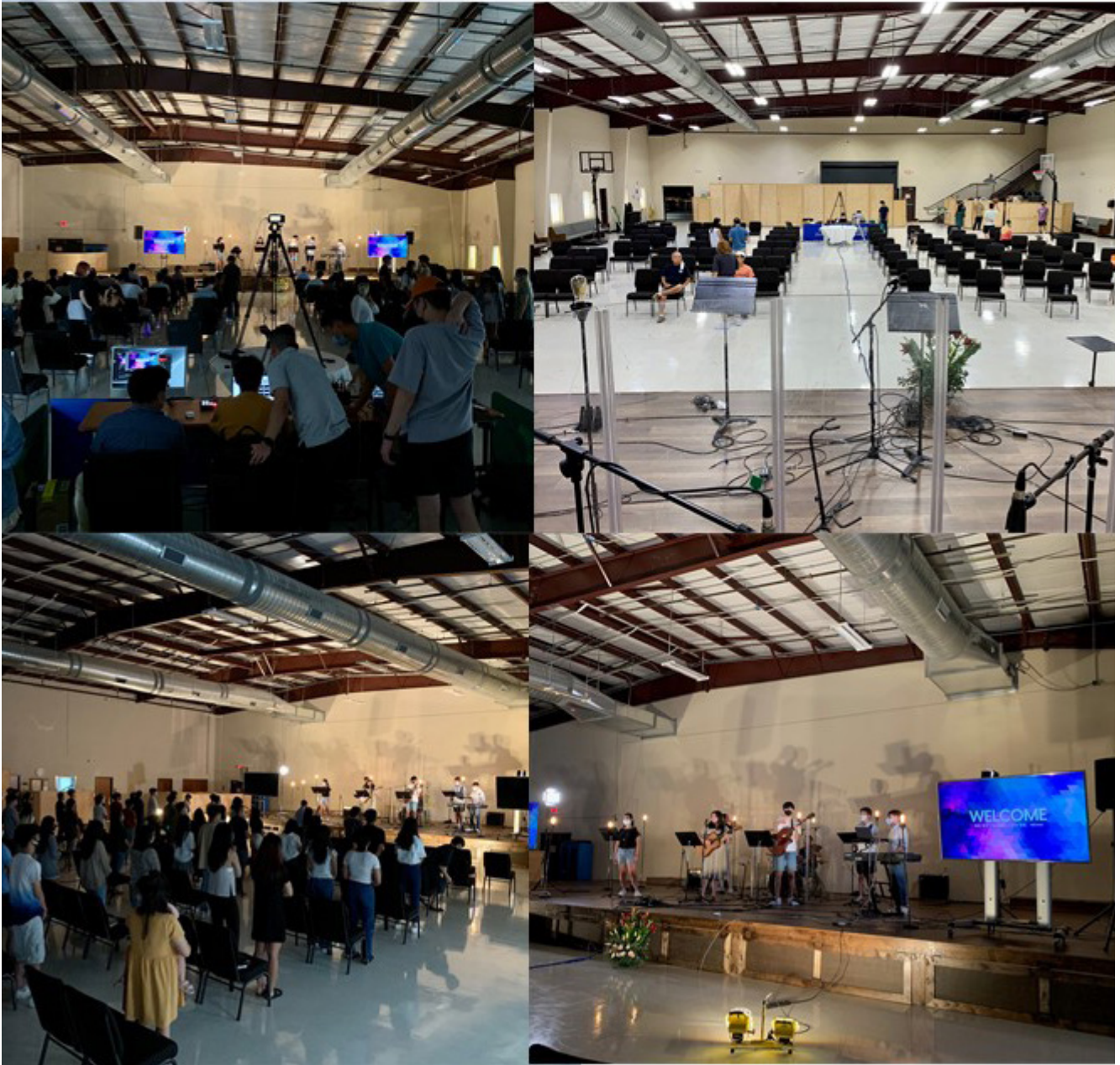
3. 자녀 신앙 교육과 한글 교육에 관심이 많으신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동참을 바랍니다.
문의 : 김효진 (hellozini@gmail.com)



어스틴한인장로교회

친교실

(EM/Youth 예배실)



새 가족 소개

인터넷 이사

김진희 집사(2021 새 가족 오리엔테이션 1기 수료)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잠언 16:9)

저희 부부는 이번 봄에 30년 동안 살았던 워싱턴 디시 지역을 떠나 어스틴으로 이주했습니다. 작년에 팬데믹이 시작되기 전만 해도 텍사스로 이사한다는 것은 생각지도 않았던 일이었는데 지나고 보니 하나님께서 팬데믹을 통해서 저희 마음에 변화를 주셔서 쉽게 결정을 하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지구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 팬데믹의 영향을 받지 않는 이들이 몇 명이나 될지 모르겠지만, 1년이 넘도록 재택 근무와 인터넷 예배, 인터넷 소그룹 모임, 인터넷 성경 공부 등등으로 이어졌던 긴 시간들은 저희의 삶을 돌아보는 좋은 계기가 되었습니다. 전에는 당연히

여겨졌던 소소한 일상들 -가족이나 친구들과의 만남, 같이 얼굴 마주 보며 차를 마시고 식사를 하면서 지냈던 시간들, 교회에서 힘껏 찬양하고 예배드렸던 주일들.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큰 축복이었음을, 그렇게 당연히 여기면 안 되는 것이었음을, 언제 옛날처럼 돌아가서 아무런 일도 없었던 듯 살 수 있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 처해서야 깨닫게 되면서 무엇보다도 가족과 같이 대면하며 보냈던 시간들이 너무나 소중히 여겨졌고, 우리를 염려해서 집에 다니러 오지도 못하는 아이들 옆에 이제부터는 가능한 한 많이 있어 주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우선순위가 정해지자 아이가 있는 어스틴으로 오는 것은 아주 당연한 것으로 여겨졌고, 특히나 아이들이 원하는 바였기에 쉽게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이사를 결정하고 난 후에 겪었던 과정들은 저로 하여금 많은 생각을 하게 하였고, 하나님의 섬세하신 배려와 사랑을 느끼게 하였습니다.

젊었을 때 미국에 와서 학교며 직장 관계로 적지 않게 이사도 해봤고, 어스틴에는 몇 번 방문하였기에 새로운 곳에 정착하는 것이 어려울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었는데 오랜 세월을 뿌리 내리고, 살던 곳을 떠난다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일이며 방문과 이사는 마음가짐부터 달랐던 것임을 깨닫고 이사 후 몇 개월간은 어스틴이 참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더구나 팬데믹 때문에 인터넷으로 집을 찾고, 계약하고 나중에 이사한 후에야 처음으로 저희가 산 집이 어떤 동네에 있는지, 내부에 들어가면 어떻게 느껴지는지를 알게 되는 그 모든 과정에 적응하기 힘들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작년 가을부터 올해 봄까지 창세기를 공부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컸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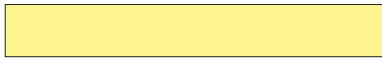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창 12:1)고 명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음’ (히 11:8)을 보면서 저라면 그 상황에서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었을까? 그리 선뜻 떠날 수 있었을까?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제 연약함을 아시고, 인터넷으로 미리 사진도 보게 하시고, 어스틴을 전에 몇 번 방문도 하게 하시고, 제 사촌 오빠 내외분이 계시는 곳이기도 한데다 오빠 내외분이 참석하시는 교회에 저희가 버지니아에서 다니던 교회에 부목사님으로 섬기시던 김준섭 목사님께서 저희보다 먼저 담임 목사님으로 오시게 되셨으니 아브라함에 비하면 하나님께서 너무나 많은 배려를 해주셨음을 보았습니다.

또한 팬데믹으로 우리가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래도 인터넷이 있었기에 예배도 드리고 소그룹 모임과 성경 공부, 그리고 직장 일도 계속할 수 있었음이 하나님의 도움이셨으며, 특히 저희가 이곳으로 이주한 후에도 섬기던 소그룹 모임과 성경 공부를 지장 없이 잘 끝마칠 수 있었음에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이사하는 과정에서 너무나 많은 분들께 사랑의 빛을 지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떠난 교회에서 섬기던 새 가족 사역원 가족분들이 팬데믹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교회 주차장에서 송별회를 크게 해주셨고, 소그룹 가족들과 많은 성도님들이 이사 준비 과정에서 큰 도움을 주시고 떠나는 날까지 돌보아 주셔서 하나님 안에서 형제자매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어스틴에 와서 처음으로 AKPC 대면 예배에 참석했을 때

반가운 얼굴로 맞아주신 김준섭 목사님과 송현희 사모님, 그리고 환영 송을 불러주신 새 가족부 성도님들, 처음 보는 저희와 긴 대화를 나누어 주신 여러 장로님, 권사님과 성도님들, 새 가족 오리엔테이션 교재를 직접 우리 집까지 가져다주신 집사님과 입교 때 손수 만든 꽃다발로 환영해주신 새 가족부 봉사자분들, 오래된 친구처럼 스스럼없이 따뜻이 대해주신 한나 여선교반, 갈보리 목장 여러분들.. 일일이 열거하자면 혹 어느 분을 누락하게 될까 봐 조심스러워 이에 그치지만 성도의 사랑으로 따뜻이 대해 주신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은총과 평안이 항상 깃들기를 바라며 하나님께서 제가 진 사랑의 빛을 몇 배로 친히 갚아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웃기만 스쳐도 인연이라는 말도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우연이란 없기에 하나님께서 저희를 이곳에 보내실 계획을 하셨고 어려운 팬데믹 상황에서도 크신 은혜로 지켜 주셔서 여러분 한분 한분을 만나게 하심에 감사드리며 앞으로 어떻게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안에서 자라나게 하실지 기대해 봅니다.



새

가족

소개

어스틴 정착기

이한주 집사 (2021년 새가족 오리엔테이션 2기 수료)



안녕하세요? 저는 이 한주입니다.

새가족부의 배한원 집사님으로부터 우리 교회의 새 교우로서 교회 정착기를 써달라는 부탁을 받고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딱히 쓸 것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배 집사님께서 어떻게 교회 생활을 해나가고 있는가를 쓰시면 된다고 하셔서, 제가 어떻게 교회 생활을 해나가고 있는지, 교회 생활을 하면서 받은 느낌을 간단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휴스턴에 19년 살았습니다. 어스틴에서 학교를 졸업하고 어스틴에서 결혼하고 정착하여 살고 있는 제 딸에게는 두 아들이 있습니다. 저의 외손자들입니다. 손자들이 커가는 모습

을 가까이 지켜보는 것이 너무나 즐겁습니다. 손자들도 자주 볼 겸, “명품 인생 만들기” 강사로 일하고 있는 저의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계셔서 올해 삼월에 어스틴으로 이사를 오게 되었습니다.

어스틴에 왔을 때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하여 현장 예배는 드리지 못하고 온라인 예배를 통하여 어떤 교회를 나가야 할지 정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어느 교회도 좋으니 집에서 가까운 교회를 선호하였지만, 아내는 찬양대를 하고 싶어서 찬양대가 있는 교회를 찾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아내의 친구를 통하여 어스틴 한인 장로교회 이숙영 권사님을 소개받았고, 이숙영 권사님과 이성신 장로님 내외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두 분을 처음 만나 대화하면서 너무나 너무나 좋은 분들이란 것을 느꼈습니다. 박학다식하시지만 내색하지 않으시고 겸손한 말투로 상대방을 배려하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몸에 배어있음을 느꼈습니다. 대화하면서 아내는 찬양대에서, 저는 관리부에서 함께 일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내는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좋아하고, 저는 육신의 땀으로써 교회를 섬기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그다음 주부터 저는 매주 토요일 교회에 나가서 관리부 팀원들과 함께 교회 주변의 풀과 잔디를 깎는 일을 했습니다. 잔디 깎는 기계와 도구들이 잘 갖추어져 있어서 일하기가 너무나 수월했습니다. 관리부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프로

페셔널하고 정성을 다해 일한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잔디 깎는 기계를 타고 몇 시간을 돌다 보면 운동이 저절로 되어서 더욱더 좋았습니다. 땀을 흘리고 난 후, 자매님들께서 맛있게 준비해준 점심을 먹으면 그 맛이 꿀맛 같았고 날아갈 듯한 기분에 “천국이 따로 없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토요일마다 나와서 일하시는 분 중에 장로님들이 많은 것에 놀랐습니다. 저의 머리에는 장로님들은 근엄하게 뒷짐 지고 있는 분들인 줄 알고 있었는데, 우리 교회의 장로님들은 말보다는 몸으로서 섬겨 주시는 분들인 것을 보고 너무나 감동했습니다. 또 많은 집사님이 매주 토요일 나와서 기쁘게 기쁘게 봉사하시는 것을 보면서 정말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 교회에 나오기를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내가 원하는 것을 따라 교회를

정했는데 이렇게 좋은 교회를 만났다는 것을 생각하며 “아내의 말을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을 얻어먹는다” 는 말이 떠올랐습니다.

처음 교회 나온 날, 새 신자인 저희 부부를 따뜻하게 환영해준 새가족부 덕분에 마음이 푸근해졌습니다. 이어서 새 신자를 위한 3주 공부(새가족 오리엔테이션)를 통해서 우리 교회에 대해서 더 잘 알게 되었습니다. 김준섭 목사님께서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을 때는 이해가 잘 되도록 쉽게 설명을 해주셔서 좋았습니다. 교회의 활동이 조직적으로 잘 짜져 있고 모든 구성과 활동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 하나님 자녀들의 행복을 위해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을 보며 놀랐습니다.

새가족 오리엔테이션이 끝난 후 활동 교인이 되어 골로새 목장에 들어가 첫 목장 모임을 갖게 되었습니다. 목장 모임에서도 말씀과 기도로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목장 식구 한분 한분이 서로를 배려하고 아껴준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 목장 안에서 마음이 편안해지고,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하는 즐거움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목장 모임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배울 뿐만 아니라 생활에 유익한 아이디어도 나누었습니다. 특별히 정윤만 집사님께서 우리 목장 식구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매주 1번씩 모여서 운동을 하며 함께 땀을 흘리는 것을 제안 하셨습니다. 모두 좋다는 의사표시를 해서 주일예배를 드린 후 교회에서 모여 배드민턴 운동을 하기로 했습니다. 교회에 허락을 요청하고 허락을 받는 대로 시작을 하기로 했습니다. 형제자매가 함께 예배드림으로써 영혼을 튼튼히 하고, 함께 땀 흘리며 운동하면서 몸을 튼튼히 만든다면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면서도 우리 모두에게 즐거움과 유익이 있게 될 것입니다. 저는 운동하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날이 더욱 기다려 집니다.



이렇게 좋은 교회와 좋은 목장을 만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저희 부부가 교회 적응을 잘하도록 인도하여주시고 도와주신 목사 목녀님, 목장 식구들, 그리고 사랑으로 섬겨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목 장 소 개

가나 목장
백 정선 집사

목자: 지정인 장로, 목녀: 지정란 집사



요한 복음 2장의 ‘가나의 혼인 잔치’ 에피소드는 아직(?) 크리스천이 아닌 사람들 사이에서도 너무나도 널리 알려진 예수님이 공생애 기간 a동안 행하신 첫 기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갈릴리 지방의 작은 마을 가나의 어느 혼인 잔칫집에서 잔치가 한창 진행 중일 때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기적을 행하셔서 몹시 당황하고 곤경에 처해 있던 잔치의 주관자들을 경이로움 속에 안도하게 하고 잔치에 초대되어 참석한 모든 사람이 더욱 즐겁고 흥겨운 시간을 어어 가게 되었다는 해피앤딩 스토리이지요.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이 놀라운 것은 물론이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잔치를 섬기는 사람들이 의심 없이 행한 온유하고 순수한 순종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더욱 아름다운 이야기가 만들어졌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목장의 명칭은 공동체가 추구해야 할 바람직한 모습을 이 ‘가나’ 라는 지명을 통해 아름답게 상징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참 좋은 이름이지요. 우리 가나 목장은 인도자이신 지정인 장로님과 지정란 집사님 부부, 김종대, 수미 집사님 부부, 이종혁, 유현 집사님 부부, 한국에 거주하고 계시는 엄종호, 이경애 집사님 부부, San Antonio 에 거주하시고 지금은 지역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계시는 권애순 집사님, 백대봉, 정선집사 부부 가정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어느덧 한 해를 훌쩍 넘겨 두 해 가까이, 그러나 아직도 그 끝이 보이지 않는, 온 세계를 극심한 혼돈과 당혹감 속으로 몰아가고 있는 초유의 팬데믹 상황 속에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 ‘광야’ 상황이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올바르게 깨닫고 더욱 성숙한 그분의 자녀로 믿음 위에 굳게 서야 할 사명을 마주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 달에 한 번씩 zoom으로 만나는 우리 가나목장의 모임은 이런 시국에 제게 적지 않은 위로와 격려가 되어 주고 있습니다.

언제나 아낌없는 헌신과 사랑, 기도로 목장 구성원 한 가정, 한 가정의 작은 일상까지 세심히 챙겨 주시는 지 장로님, 집사님 부부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성실한 준비와 균형 잡힌 시각, 따뜻한 포용력으로 말씀 나눔과 모임 전반을 유연하게 이끌어 주시는 장로님의 리더십으로 우리 가나목장 모임은 언제나 은혜 안에서 감사와 사랑, 잔잔한 웃음이 이어집니다. 무엇보다 진솔하게 개인과 가정의 삶과 신앙의 도전을 가감 없이 내려놓고, 정직한 기도 제목을 나눌 수 있는 편안하고 따뜻한 분위기와 그렇게 나눈 기도 제목을 구성원들 모두 진심으로 협력하여 자기 일처럼 중보 기도 해 줄 것이라는 신뢰가 형성되어 있는 것이 정말 든든합니다. 어찌할 수 없는 불

가향력적인 상황으로 비록 전처럼 한 공간에 함께 모여 따뜻한 음식 나누며 눈 맞추고 손 맞잡지 못하지만,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zoom으로 이루어지는 목장 가족들과 만남이 더욱 소중하고 귀하게 여겨지는 것 같습니다. (물론 바로 그런 이유로 이 시국이 더욱 친밀하고 밀접한 하나님과의 독대와 깊은 말씀 묵상의 기회도 제공해 주었지만 말이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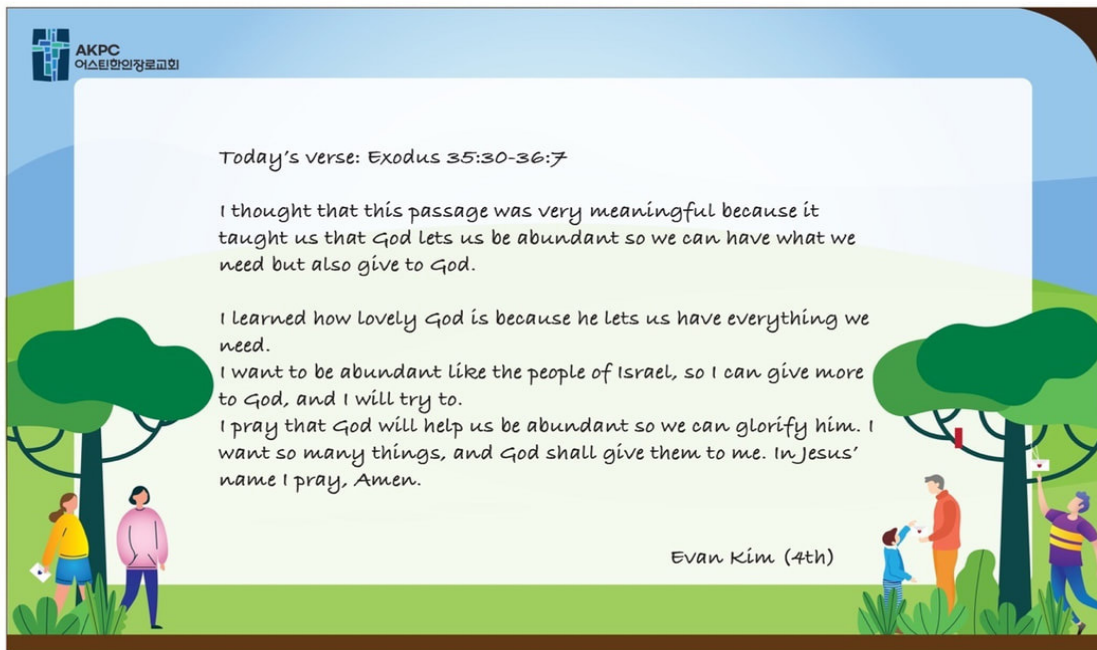
우리가 감히 헤아리지 못하는 크신 하나님의 계획과 사랑의 인도하심이 모든 상황을 바람직하게 이끌어주셔서 물리적으로 거리낌 없이 반갑게 서로 마주할 수 있게 될 때, 더욱 성숙해진 믿음의 깊이와 공동체 구성원 간의 사랑으로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의 이웃들에게도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전할 수 있는 우리 아름다운 가나 목장이 되리라는 것을 믿고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가나 혼인 잔치에서 행하신 예수님의 공생애 첫 기적을 더욱 온전하게 완성했던, 그곳에 있었던 여러 사람의 ‘아름다운 순종’ 이 전했던 바로 그 향기처럼...

우리 가나목장 가족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안에서 한 분 한 분 모두 모두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가나목장의 구성원이어서 너무나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행사 소개

QT Tree Festival 행사를 준비하며

가버나움 목녀 김지현



먼저 QT Tree Festival 행사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행사 준비를 시작하기 위해 첫 미팅에 참여했을 때가 생각납니다. 저는 이런 행사를 준비해본 적이 없어서 걱정도 되었지만 한 편 조금 설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땐 앞으로 4개월이 남았다고 생각했었는데 시간이 정말 빨리 지나간 것 같습니다. 지난 4개월 동안 행사부원들과 함께 기도로 준비를 하는 동안 배운 점도 많았고, 그러면서 시간이 갈수록 더욱더 마음에 기쁨이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 행사를 준비하는 기간 특히 은혜받은 몇몇 시간들을 짧게 나누고 싶습니다. QT 교재를 목자님들께 나누어 드릴 때가 생각납니다. 5월에 처음 QT 교재 나눔을 시작했을 때 높이 쌓아진 교재들을 보며 괜히 제가 서점 주인인 양 행복해했습니다. 무거운 교재를 가지고 가시는

목자님들을 보면서 죄송하면서도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두 달 전부터 아름다운 포스터가 교회 곳곳에 붙어있고 또 성도님들께서 이 행사에 관심을 가지고 질문을 주실 때 든든한 공동체의 사랑을 느꼈습니다. 비록 Covid 19사태로 서로 자주 뵙지는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함께 살아가는 말씀으로 세워지는 공동체로 꼭 붙들어 주고 계시는구나 하는 마음이 들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욱 느끼게 되어 감사했습니다. 개인적으로 QT 생활을 하고는 있었지만, 다른 성도님들과 함께 참여하여 더 든든하고, 서로 이끌어 주며 나아간다는 마음에 의지가 되었습니다. QT 생활을 더욱더 충실히 해야겠다는 다짐이 들었습니다.

이 행사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지원을 아끼지 않고 해주신 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 동영상 제작해 주신 이숙영 권사님과 동지현 집사님, 재정부, 관리부, 다른 부서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같은 행사팀에서 아름다운 디자인과 포스터를 척척 제작해주신 김정선 집사님의 헌신, 그리고 깜짝 놀랄 첫 비디오를 제작해주시고 이것저것 꼼꼼하게 검토해주신 백 기숙 집사님의 열정, 무엇보다 이 과정에서 행사부장으로 시작부터 끝까지 선두 지휘하면서 섬김이 무엇인지 몸소 보여주신 김혜은 집사님(과 가족분들)께 많이 배웠습니다. 그리고 앞에 놓인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해결해 주신 김상보 장로님께도 감사드립니다. 항상 직장을 핑계 대며 바쁘답시고 시간에 쫓기었던 제가 많이 부족했지만 행사 부에 동참 시켜 주시고, 같이 준비할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 기회가 여러분도 저희를 사랑하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몸소 체험하는 시간이 되었기를 소망합니다.

Preparing for QT Tree Festiva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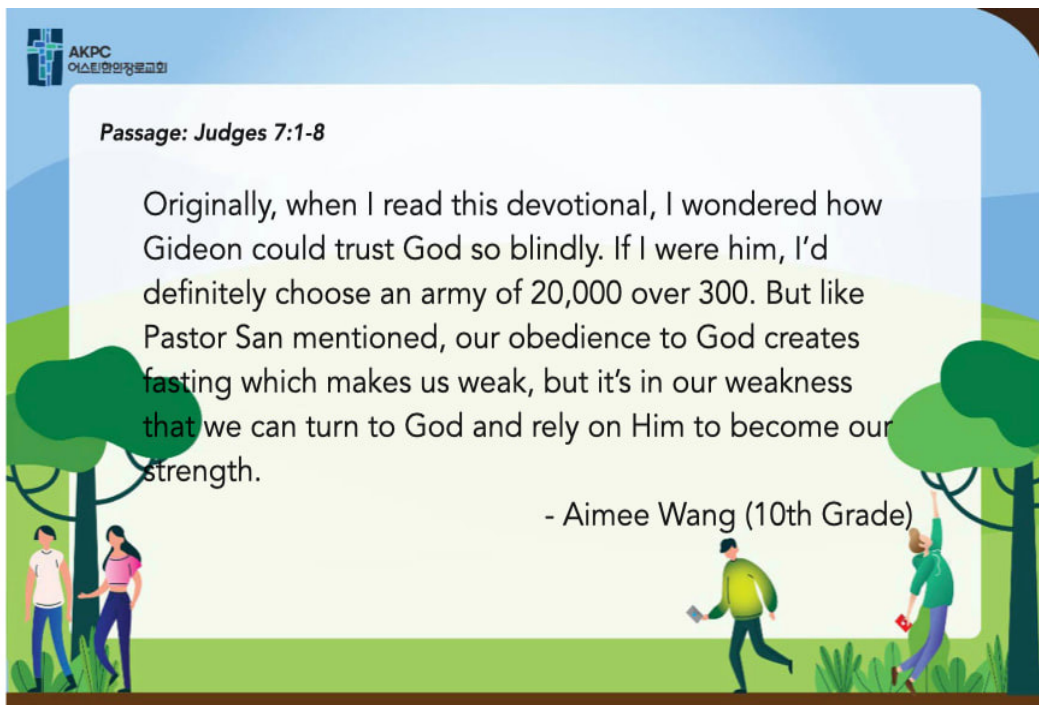
by Valerie Kim from Capernaum House Church

First, I would like to give thanks to God who made all this possible. I remember how I felt at the very first preparation meeting for the QT Tree Festival. I was a little worried and wondered if I could even contribute anything for this event, but I have to admit I was a little excited too. I can't believe 4 months have gone by so quickly. I learned a lot about planning for the event, executing tasks, and supporting other team members. I started feeling so grateful for the team members and extended teams in other departments of AKPC for all their support.

There are few moments I felt God's grace and love. In late May, the team had spent two weekends distributing QT books to house church leaders. I felt so moved watching leaders taking piles and piles of QT books stacked up so high just so that they could deliver books to their members. It must not have been easy to visit each of their members' homes and hand out the books, but no one complained. They showed so much appreciation for the event and the churc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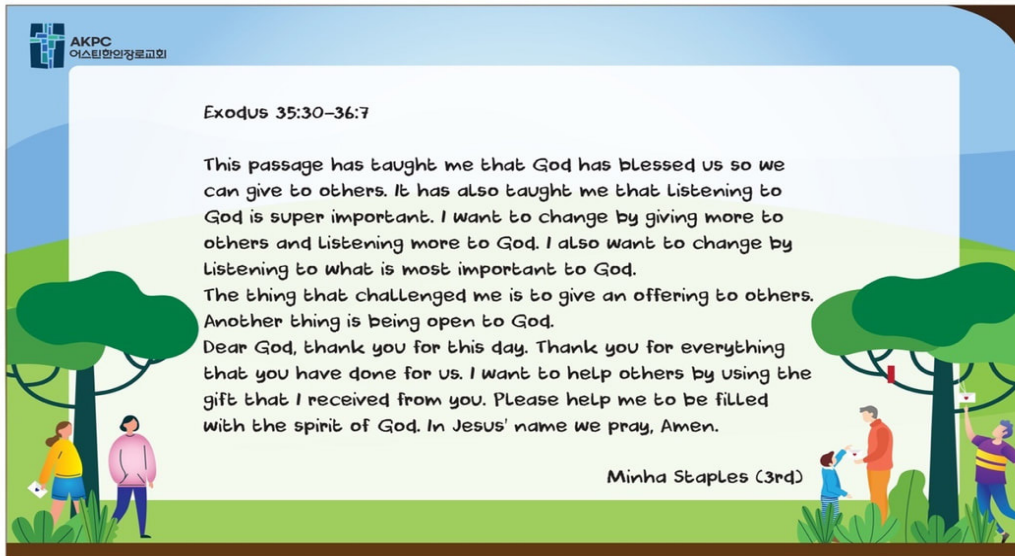
Also, seeing beautiful QT Tree Festival posters reminded me of what it used to be like having happy gatherings at AKPC before Covid 19. I feel so blessed how God holds us together so strong and powerful through this pandemic and does his wonders with little and big things. Daily QTs with others gave me a sense of belonging and support from this big family. I decided that I should devote more time and give more focused effort to my daily QTs.

I felt so lucky to be a part of this amazing team and be allowed to participate in this event from the beginning. Thank you from my heart for all the support from all pastors and groups of AKPC. Personally, I would like to thank team members, Jungsun JSN and Hanna JSN and most of all, the team leader, Grace JSN (and her family) and Elder Sean for being such inspiring trailblazers. Hope this event opens a door a little more to encourage others doing daily QTs and let us live as a happy big family of AKPC, a church that stands on God's words. Thank you.



큐티 트리 축제

이연숙 집사



할렐루야!

에덴 목장 목녀로 섬기고 있는 이연숙 집사입니다.

오늘은 그동안 꾸준히 준비해온 QT의 즐거움을 서로 나누고, 응원하고, 기뻐하는 축제의 날입니다.

먼저, 주님을 자랑할 수 있도록 기회를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저는 행사부는 아니지만, 제가 봉사하는 부서를 통해 QT홍보 영상을 만들고, 또 목장 식구들과 줌을 통해 홍보영상을 찍는 등 간접적인 참여를 통해서, 더 열심히 QT의 습관을 들여야겠다고 다짐해 왔습니다.

사실 저희 목장은 몇 년 전부터 카톡을 통해 매일매일 목상을 나누고 있어서 낯선 도전은 아니었지만, '생명의 삶' 본문으로 다 함께 QT를 해보니, 더욱 나눔이 풍성해지고 영적인 대화까지도 가능해지는 놀라운 변화와 열매를 맛볼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목원 중 한 자매님과 QT 하며 느낀 점, 적용, 결단, 기도하고 응답받은 이야기

를 나누며 두 시간 넘게 통화한 적이 여러 차례 있었는데요, 영적인 양식이 채워지니 밥을 안 먹어도 배부르다는 고백까지 서로 했을 정도로 기쁨과 성령 충만한 시간을 함께 누리고 있습니다.

QT 노트를 가정당 7장씩 나눠드렸는데도 혹시 남는 거 있으면 더 달라며, 지정된 에덴 목장 나무가 있다면 풍성한 QT 노트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게 돕겠다는 사랑스러운 목원분도 계셨고요.

또 저희목장에 통독 일정을 매일 올려주고 있는 자매님은, 그동안 마음이나 생각으로만 해오던 QT를 한 자 한 자 정성스레 노트에 적으면서, 하나님께 들려드리고 보여드리고 싶은 나만의 마음을 정성 다해 고백할 수 있어서 참 기쁘고 뿌듯하다고 하셨습니다.

덧붙여 아이들까지 참여하는 귀한 가정들도 있는데요, 무엇보다 아이들과 함께 같은 본문으로 QT하고, 자기 전에 각자 묵상하고 느낀 점을 나누다 보니 아이들의 이해를 도울 수 있었고, 사춘기라 말 수가 줄어든 아이들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헤아릴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하다고 고백하셨습니다.

물론 적용에 실패한 날도 수없이 많았지만, 아이들에게 실패도 솔직하게 나눔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다잡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변화를 받았다고 나눠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느낄수있는 방법은 각각 다르겠지만, 뒤돌아보니 꾸준하게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것만큼 큰 힘이 되고 열매가 되는 건 없는 것 같습니다.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모두 말씀이 토대가 되어야 함을 QT를 통해 배웠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원동력이 되

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근원이 되면 좋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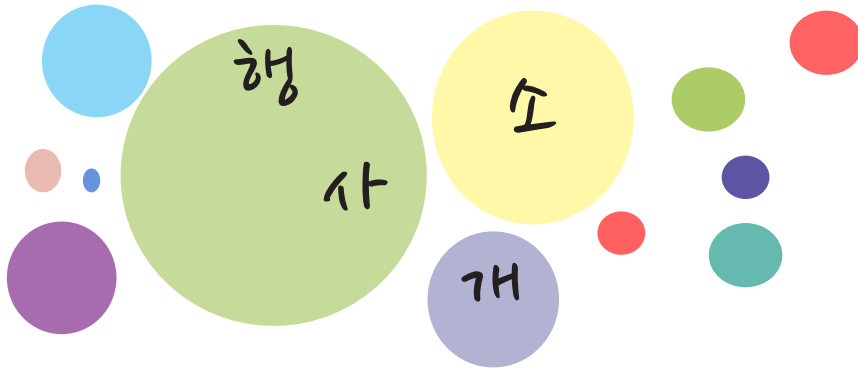
특별히, 이른 아침 굿모닝 말씀 산책을 통해 매일 채워주시는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더욱 연합하고 부흥하는 AKPC가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 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찢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이 우리들과 우리 다음 세대에게 역사 되고 증거되기를 기도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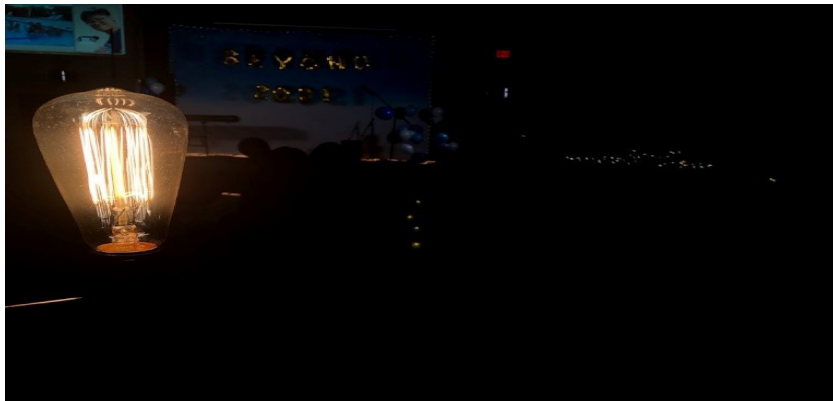
오늘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매일 QT로 말씀의 전신 갑주 입어 세상 풍파속에서도 당당히 믿음을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senior banquet : Beyond Soobeen Ahn



Every year, the youth group prepares a special celebration for the graduating seniors. However, because of Covid this year, we couldn't do the exact same thing we had done in previous years. To help keep everyone safe, only the seniors, teachers, and a few leaders were invited to church while everyone else watched it live through the Radiate website. There were many challenges that we had to face because of this, but in the end, it was successful and everyone involved made memories they won't ever forget.



This year, the theme was “Beyond” and it was based on the sky and clouds. We

chose this theme because the clouds are forever changing in their sizes and shapes, like how the graduating seniors are forever changing and growing as they enter a new chapter of their lives. Even though only a small number of people could come to the banquet, there were still a lot of people who helped with it behind the scenes. The banquet couldn't have happened without everyone's help.



We divided the youth group into three groups, decoration, performance, and video teams. The decoration team was in charge of gifts, the backdrop/photo booth, and decorating the cafeteria. We met through Zoom several times to decide which gift was best for the seniors and also fit in with the theme of “Beyond” . In the end, we chose a message jar as the main gift and had lots of Radiate members and teachers write a message to each of the seniors. As for the backdrop in the photo booth, we dyed it blue with a gradient to help resemble the sky. The performance team was in charge of organizing and getting Radiate members to sign up to perform or make a speech to the seniors. They helped tremendously by constantly motivating everyone to do performances and it was only because of their help that we managed to get ten performances this year. Lastly, the video team was in charge of editing the performance videos received from the performance team and making sure that things like the video quality and sound worked smoothly. On the actual day of the banquet, they were in charge of the mic and live-streaming the whole banquet.

Even though everyone was in the specific team to help, in the end, everyone helped with everything. Thank you to every person who helped make the Senior Banquet possible this year, including the youth group, teachers, Pastor Jin, and all the parents. It was only through everyone's efforts that we managed to give the seniors the celebration of a lifetime. Lastly, we asked “What did you get from Senior Ban-

quet?” for our MCs, Soobeen, and Sumin.

“This was my first time leading a big event like this, so I was actually quite worried. But through the senior banquet, I learned that giving to other people is more of a blessing than to receive and that we were not created to do it alone. Asking for help from other people is a good thing, not something to be ashamed of. I’m so glad that I had Pjin and Sumin by my side whenever I needed help or when I felt doubtful on what I was doing. Since I was the MC, I was really nervous and thought I could never talk to a big group of people. But I learned that my fear doesn’t scare God and that he uses my weaknesses to do something that I never thought I would be able to do. I’m glad that God used me to lead this Senior banquet this year and I will never forget what I got from it.” –Soobeen Ahn

“To be completely honest, it was my first time being in a leadership position like that. I was constantly worried about how well I was doing. Due to this, I was always stressed if I was doing enough and it felt like I was trying to prove to myself that I



could do better. There were moments when I felt like giving up as it was just very exhausting. It felt like I had 10 million things running on my head. But when I was nearing that point of exhaustion, Pjin actually zoom called me and Soobeen telling us just how thankful he was for us, and then it hit me. That I’m not doing this for myself, but I’m doing this for the congregation and for the Graduation Radiate Seniors. Through this, I learned that if we lead with

a heart to serve, it feels a lot more rewarding than doing it with a heart to prove something. I also learned that I can lean on others more. I always tell people, if they need my help, that they can always ask for my help. But me being a hypocrite, I typically don’t ask people for help as I don’t want to be a burden. But through Senior Banquet, I learned that I can lean and depend on people like Soobeen or Pjin and that I’m not in this alone.” – Sumin Yeo

Thank you, God, for being with us when we were preparing this big event for the seniors.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아름답고도아름답도다



GP-brazil 선교회 10주년을 뒤돌아보며

(어스틴한인교회 협력선교사 김선웅)

1. 브라질 본부는 GP의 사명선언문의 원동력으로 출발

“GP의 사명은 마지막 시대의 선교를 이끄는 공동체로서 창의적 선교전략을 가지고 서로 협력하여 현지의 지도력을 개발함으로 지구촌을 신속하게 복음화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어제의 창의적 전략은 오늘의 낡은 전략이 되고 만다.’ 선교의 환경은 부단히 변화하고 있으며 전략은 언제나 새로워져야만 하는 것이다. 21세기 선교의 관건, 최대 이슈는 협력 (Partnership)이다. 우리는 세계적인 동역자들 (Global Partners)이 되기를 원한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라면, 언제, 누구와 어떤 조건으로도, 성경과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지 않는 한, 협력할 것이다. 현지의 지도력이 개발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고 서는 의존적 교회, 의존적 선교를 넘어설 수 없다. 선교는 쌍방 통행이고 또 그렇게 되어야 한다. 그리하여 모든 민족에게서 모든 민족에게로 가는 선교가 되어야 한다. 이것을 위하여 우리는 현지의 지도력 개발하는 사역을 최우선의 사역 우선순위로 설정한다. (In GP Manual)

2. Visionary in GP

우리 GP는 세계선교를 이끄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 1999년 5월25일에 재 창립하면서 선교 사명선언문을 공포하고, 국제화로 한 걸음 더 나아가면서 ‘2000년 양춘길 목사(GP-USA 이사)는 앞으로 ‘한국선교의 올바른 방향은 ‘선교사가 선교사를 낳는 모델’ 이 될 것이며, 나는 그 사역을 지원할 것이다’ 라 했다. 그리고 2003년 10월 태국에서 ‘지피선교대회’ 에서 백운영 선교사는 ‘향우 GP의 장기전략방향’ 을 강의하면서 ‘서구선교사가 오랫동안 현지 교회를 새로운 선교의 세력으로 보지 못하고 피선교국으로만 보았던 우를 답습해서는 안 된다’ . 그리고 또한 ‘GP선교회는 우리가 선교한다는 생각보다는 우리를 통하여 현지교회가 선교하는 교회로 탈바꿈하는데 밀거름 역할을 한다는 전략을 지향한다’ 고 선포했다. 그래서 이 때부터 나는 Church Planting to Mission Planting을 연구하는 가운데 “포어문화

권 선교’에서 남반구 선교의 모델을 꿈꾸며 세계를 선교의 장으로 보기 시작했다.

3. 선교를 이끄는 공동체로서 현지인을 위한 현지인 선교단체

1995년, 브라질 현지 교회를 설립하고 지도자를 양육하여 12년만에 베니시우 형제를 아프리카 선교사로 파송하면서 해롤드 풀러(Fuller W. Harold)의 교회개척(4P) 마지막 Participant Stage 단계를 뛰어 넘는 경험을 하게 된다. 브라질 본부는 현지교회개척 10년만에 교회를 현지 이양하고, 그 경험으로 교회재생산 사역을 시작함과 동시에 선교현장에서 세워진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와 같은 선교사가 되어 또다른 타문화권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된 사건으로 인하여 자연스럽게 선교개척(CHurch Planting to Mission Planting)사역을 하는 가운데 하나의 조직이 생겨났다. 이것은 GP선교회의 오랜 숙원이었던 국제화의 첫 열매이며, 그동안 한국인으로만 이루어져 있던 선교회에서 현지인들과 함께 하는 ‘국제선교단체’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하였다. 브라질 본부는 현지인 중심의 이사회를 구성하고 현지어로 회의하며 세계선교를 위해 선교사를 발굴, 훈련, 파송 그리고 후원과 관리까지 외부의 지원 없이 자체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한국뿐만 아니라 타국에도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



4. 브라질 ‘Mission Planting’ 프로젝트의 시작과 과정

2002년부터 김선웅 김혜란 선교사는 ‘Church Planting to Mission Planting’ 프로젝트를 연구하여 2004년 지역모임을 통해 국제본부에 상정되었지만 GP-I.D.M 최고의 리더들은 상정된 M.P 사역의 결론을 내지 못하고 GP 국제협의회를 거쳐 GP-USA 이사회로 결정권을 넘기게 된다,

2005년 3월 8일 김선웅 선교사는 미주 이사회에 참석하여 직접 M.P 프로젝트를 발표하고 미주 이사회와 김원기 이사장(GP-USA)의 허락을 받고, M.P 사역의 첫발을 내디디기 시작한다. 그리고 2년동안 우리와 함께 선교 공동체훈련을 받은 베니시우 형제를 ‘2007선교남

브라질 GP선교회 창립예배
(2010년 4월24일 상파울로 새생명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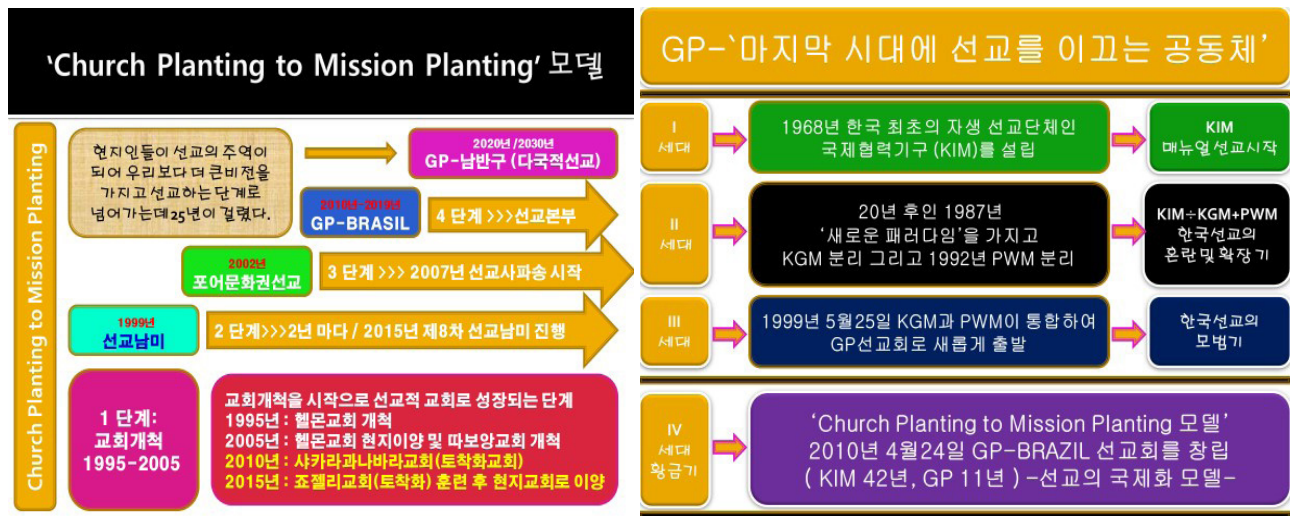


미훈련' 을 이수하고 아프리카 모잠비크 선교사로 파송했다.

2010년 4월24일 GP-Brazil 창립예배에 국제협의회장 양춘길 목사와 국제대표 김병선 선교사 그리고 정동혁 장로(미주 이사)가 참석하여 말씀과 격려사로 축하해 주었다. 그리고 미주 이사회에서는 GP-Brazil 창립을 격려하고자 Seed Money를 보내주었다.

5. GP선교회 국제화를 위한 TFT 모임들

2014년 6월30일 GP국제화를 위한 TFT 첫 번째 모임에 박수민 팀장으로 백운영, 김승봉, 장영호, 박종승, 김선웅 선교사가 참여하였고, 2015년 4월20일에는 두 번째 모임으로 김혜란 팀장으로 백운영, 장영호, 육대주, 주인석, 박에스더, 진실로 선교사가 참석하였다. 2015년 GP-IDM과 ICM에서 TFT 팀장인 김혜란 선교사가 그동안 정리된 'GP국제화' 를 발표했다. 하지만 국제화 진행과정 가운데 M.P 사역을 경험해보지 못한 몇몇 선후배 선교사들의 반대의견도 있었으나 10년이라는 세월속에 간섭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GP안에 정착될 수 있는 은혜와 기적을 주셨다.



6. 본부가 설립되기 전에 남미에서는 GP선교남미(선교훈련원)가 있었다.

'정금태(파라과이), 박영완(칠레-볼리비아/현 멕시코), 김선웅(브라질) 선교사가 각자의

선교지에서 선교를 하면서 남미 대륙에 흩어져 있는 ‘한인 디아스포라’ 를 연구하면서 그들이 선교에 있어서 무한한 가능성과 잠재력을 가지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남미 한인 디아스포라’ 를 선교에 동원하기 위해 1999년, 선교남미 제1대 훈련원장에 김선웅 선교사를 임명하고 선교남미 훈련원을 브라질에서 시작하였다. 그리고 2차(2003년)부터 8차(2015년)까지는 정금태 선교사가 원장으로 섬겼고, 선교남미는 2년마다 남미 각국을 순회하면서 브라질, 아르헨티나, 칠레, 파라과이에서 선교 운동을 확장해 나갔다(선교남미 2007년부터는 현지인들도 참석).



7. 브라질 본부의 태동(胎動과 창립 그리고 파송되어지는 선교사들.

2002년부터 브라질에서 아프리카를 개발하기 위해 ‘포어 문화권 선교’ 프로젝트를 준비하면서 GP-IDM과 국제협의회까지 상정되고 허락을 받기까지는 2년의 시간이 필요했다. 사실 2년이라는 시간은 하나의 프로젝트를 상정해서 허락을 받아 시작하는데 조금 늦은 감이 없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4년부터 선교사 후보생으로 훈련을 받은 베니시우 브라질 현지

인을 2007년에 GP국제본부를 통해 파송하기로 하였는데 국제본부의 준비 미흡으로 인하여 GP 정식선교사로의 파송은 불가했다. 그래서 우리가 개척한 헬몬교회와 브라질 사랑의 교회(김영수 목사)에서 GP 협력 선교사로서 '공동 파송' 을 했다. 파송 후 2년이 지난 뒤 선교 중간보고 차 브라질 방문 때 GP-Brazil 선교회 창립을 위해 준비하던 중 침례교회(이우두 목사, GP-Brazil 이사)에서 GP 정회원 선교사로서 파송 예배를 드렸다.

2010년 4월24일 GP-Brazil 선교회 창립예배를 브라질 새생명교회에서(한도수 목사) 드렸고 또한 조제윌슨과 끌레이지 부부를 모잠비크에 파송했다. 그 다음해에는 실비우와 에리카 부부를 모잠비크에 파송했고, 2013년 1월에 김정호(김은경)과 오성권(최은하) 선교사를 파라과이와 브라질 선교동원으로 파송하고, 계속해서 황중태(김아름) 브라질 1.5세를 파송했다.

<p>GP-BRASIL 이사 및 선교사</p> 	<p>2020년 GP-BRAZIL 파송 지역 및 선교사</p> <table border="1"> <tr> <td> <p>포르투갈어 문화권</p> <p>1. Jabez Kim e helena Kim 2. Benício e Margarida</p> </td> <td> <p>스페인어 문화권</p> <p>3. Hoya Kim e Melanie Kim 4. Antonio Hwang e Elena Kim 5. Ronor Flores Chirinos 6. Brian Dirr</p> </td> </tr> <tr> <td> <p>힌두 문화권</p> <p>7. Bienvenida Anyelén</p> </td> <td> <p>불어 문화권</p> <p>8. Titian e Adriana</p> </td> </tr> <tr> <td colspan="2" style="text-align: center;">  </td> </tr> <tr> <td> <p>2020년 2월 파송 선교사</p> <p>9. Kim, Shin Young(브라질) 10. Kim, Hee Young(페루) 수습 선교사</p> <p>1. Max Jhoan Samanez Gomero</p> </td> <td> <p>MK</p> <p>1. Sung Soon, Débora 2. Eliel, Mwiu, Celly 3. Benjamim, Grace 4. Ian, Rachel, Zion 5. Sophi, Galeb</p> </td> </tr> <tr> <td> <p>협력 선교사</p> <p>1. Jong Song Chi, Sung Nam Lee</p> </td> <td> <p>정회원 10가정(15명) 수습(4명) 협력 1가정(2명)+MK 12명=30명</p> </td> </tr> </table>	<p>포르투갈어 문화권</p> <p>1. Jabez Kim e helena Kim 2. Benício e Margarida</p>	<p>스페인어 문화권</p> <p>3. Hoya Kim e Melanie Kim 4. Antonio Hwang e Elena Kim 5. Ronor Flores Chirinos 6. Brian Dirr</p>	<p>힌두 문화권</p> <p>7. Bienvenida Anyelén</p>	<p>불어 문화권</p> <p>8. Titian e Adriana</p>			<p>2020년 2월 파송 선교사</p> <p>9. Kim, Shin Young(브라질) 10. Kim, Hee Young(페루) 수습 선교사</p> <p>1. Max Jhoan Samanez Gomero</p>	<p>MK</p> <p>1. Sung Soon, Débora 2. Eliel, Mwiu, Celly 3. Benjamim, Grace 4. Ian, Rachel, Zion 5. Sophi, Galeb</p>	<p>협력 선교사</p> <p>1. Jong Song Chi, Sung Nam Lee</p>	<p>정회원 10가정(15명) 수습(4명) 협력 1가정(2명)+MK 12명=30명</p>
<p>포르투갈어 문화권</p> <p>1. Jabez Kim e helena Kim 2. Benício e Margarida</p>	<p>스페인어 문화권</p> <p>3. Hoya Kim e Melanie Kim 4. Antonio Hwang e Elena Kim 5. Ronor Flores Chirinos 6. Brian Dirr</p>										
<p>힌두 문화권</p> <p>7. Bienvenida Anyelén</p>	<p>불어 문화권</p> <p>8. Titian e Adriana</p>										
											
<p>2020년 2월 파송 선교사</p> <p>9. Kim, Shin Young(브라질) 10. Kim, Hee Young(페루) 수습 선교사</p> <p>1. Max Jhoan Samanez Gomero</p>	<p>MK</p> <p>1. Sung Soon, Débora 2. Eliel, Mwiu, Celly 3. Benjamim, Grace 4. Ian, Rachel, Zion 5. Sophi, Galeb</p>										
<p>협력 선교사</p> <p>1. Jong Song Chi, Sung Nam Lee</p>	<p>정회원 10가정(15명) 수습(4명) 협력 1가정(2명)+MK 12명=30명</p>										

8. 브라질 본부 첫 번째 ND로 김혜란 선교사 임명

GP국제회의(2011년) 결의사항 중 5. 김혜란 선교사에게 ND의 명칭을 주되, 브라질 본부에서 선교사 7 유닛을 정식으로 파송 하기전까지는 ND와 이사회원 1명이 국제협의회 '언권 회원으로', IDM에는 ND만 '언권 회원으로 참석' 하다(2011년 국제협의회 결정)

9. '2015-IDM / ICM' 브라질 본부의 자율운영

2015년 IDM과 ICM 모임이 브라질 '캄프스 두 조르다옹' 에 있는 호텔에서 있었으며, 브라질 본부와 이사들이 호스트로 섬겼다. 이 때 결정사항 8.2 국제협의회: 각국본부는 GP현장을 공유하고 매뉴얼은 각국 본부에서 제작하여 자율적으로 운영하기로 하다. 이 결정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현장과 매뉴얼의 분리와 매뉴얼을 간소화(GP구조의 변화)시킴. 이 때부터 GP-Korea, GP-USA 그리고 GP-Brazil이 세계선교의 동반자가 되었다.



10. 브라질 본부의 두 번째 대표 임명

2016년에 브라질 본부 2대 대표로 김선웅 선교사가 임명되었다. 계속해서 앙젤린, 로널, 브라이언을 파송하고, 아프리카 카메룬에 찌찌양(아드리아나)를 파송했다. 그리고 2020년 2월에는 한국에서 남미선교사가 되기 위해 GP-Brazil 훈련원까지 찾아와서 훈련을 받았던 김신영, 김희영 선교사를 브라질과 페루로 각각 파송하였다. 그동안 브라질 본부에서는 다국적(브라질, 아르헨티나, 페루, 남미에 살고 있는 1.5세와 한국인) 선교사 13가정을 파송 한 경험으로 중남미와 아프리카를 넘어 이제는 복음이 필요한 모든 민족으로 확장되었다. 2020년 10월에 브라질 본부 10주년 기념식 예정이었으나,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하여 2022년 10월로 연장하여 12주년 기념식을 할 예정이다.



오스틴 한인교회 협력 선교사로서 성도님들의 기도 덕분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의 능력이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최고의 선교사로 사역하게 하셨습니다. 저희들은 교회개척을 통한 선교개척이 가능했고, 또한 2000년에 개원한 헬몬유치원을 통해 문맹자가 없는 선교지가 가능했습니다. 이제 유치원을 졸업한 아이들이 성장하여 목사로 선교사로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 두 사람은 선교의 부름 심에 순종한 것밖에는 없었으며 여러분들의 기도가 연약한 저희들을 통하여 최고의 선교사로 사역하게 하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함을 전합니다. 계속해서 브라질 선교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모두가 함께 겪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변함없는 관심과 기도에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아름답고도아름답도다



코로나로 위독한 선교사 위해 에어 앰블런스 이송

표현모 기자 hmpyo@pckworld.com

2021년 07월 28일(수) 17:14

총회 세계선교부 실행위원회, 인도네시아 김충환 선교사 이송하기로 결의
코로나로 인한 귀국 선교사 증가로 숙소 지원 위해 교회들에 협조 요청키로



세계 곳곳의 선교사들이 코로나19 감염 증세로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최근 인도네시아의 김충환 선교사가 코로나19 확진 증세가 악화되어 에어 앰블런스를 통해 귀국시키기로 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세계선교부는 지난 27일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회의실에서 실행위원회를 통해 김 선교사의 에어 앰블런스 후송을 위한 경비 모금 및 지출을 허락했다.

김 선교사는 현재 코로나19로 인한 폐렴 및 폐손상으로 호흡이 어려운 가운데 산소포화도가 89%까지 떨어지는 등 심각한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산소포화도는 90% 이하면 저산소증으로 인한 호흡곤란이 오고, 80% 이하면 매우 심한 저산소증으로 분류된다.

김충환 선교사의 에어 앰블런스 귀환을 위해 김충환 선교사의 신대원 동기인 장신대 77기 동기회가 1억원 이상의 금액을 모금했으며, PCK 세계선교사회 회원들과 인도네시아 동부선교회에서 각각 3000만 원이 넘는 금액을 모금했다. 김 선교사는 오는 30일 국내로 이송될 예정이다.

이외에도 이번 실행위원회에서는 최근 의림교회와 새벽교회에서 후원한 코로나 멤버케어 지원금은 국내외 선교사 모두에게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위기상황 발생으로 귀국 선교사가 또 다시 증가함에 따라 숙소 지원을 위해 선교관이나 게스트하우스를 보유하고 있는 교회들에게 협조를 요청하기로 했다.

이날 실행위원회에서는 콩고자유대학교 관련, 최근 법원 판결이 났으므로 후속조치를 연구해 총회에 청원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해외 선교사 훈련을 받기 원하는 해외 한인교회의 담임목사들에 대해서는 온라인 강의 12주와 오프라인 강의 2주의 스케줄로 선교사 교육을 진행하기로 했다.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아름답고도 아름답도다



팬데믹 시대에 열린 사역 김 성일 목사(페루 주재 선교사)

팬데믹 시기의 이곳 페루에서는 작년 3월에 집콕이 시작되었고 벌써 1년 반이 지난 시점에 팬데믹의 시작으로 인한 삶의 변화가 이제 일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코비드 사태는 많은 두려움과 가족과 이웃의 죽음으로 인하여 슬픔과 고통을 주었고 아직도 변형 코비드로 인한 위험에서 벗어난 상황이 아니고 팬데믹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에 많은 변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판데믹 이전에도 선진국에서는 인터넷으로 공무와 인터넷 판매가 보편화 되어있었지만 페루에서는 팬데믹 이전에는 일반적으로 전통적인 방법의 사무와 상거래가 이루어졌었습니다.

팬데믹으로 페루에서도 많은 변화가 진행 중인데 특별히 정부 기관의 일반 업무가 인터넷 업무로 바뀌어 가고, 판매의 방법도 인터넷 상거래로 바뀌어 가고 있는데, 갑작스러운 변화로 사람들은 인터넷의 애플리케이션에 익숙해지면서 사용의 편리함과 비용의 절감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팬데믹 이전에 공적 서류를 신청하기 위하여 관공서에 가서 줄을 서고 많은 시간이 걸렸지만, 지금은 직접 관공서에 가지 않고 인터넷으로 서류를 신청하고 비용도 인터넷으로 지급하는 형태로 바뀌어 가고 있는데, 비용에는 큰 차이가 없지만, 시간이 단축된 이점이 있습니다.

지금은 과도기이므로 플랫폼 설치에 시행착오와 오류로 인하여 불편을 겪고 있지만 이런 형태의 사무처리가 일반화되는 데는 시간 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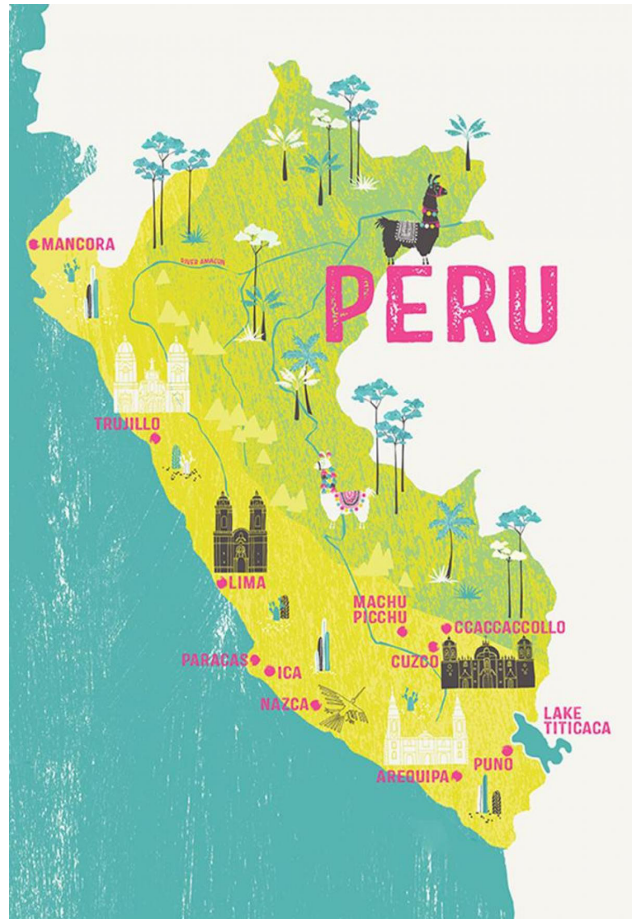
제라 생각됩니다. 아직도 모든 교육 기관에서는 현장 수업이 금지되어 인터넷으로 초중고 대학교의 수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판데믹 이전의 현장 수업을 그리워하지만 이미 인터넷 수업에 익숙해진 편리함과 경제적인 측면에서 비용 절감으로 인하여 팬데믹 이전의 전적인 현장 수업 형태로 되돌아가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예측을 합니다.

무엇보다도 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의 학생들이 인터넷 사용에 익숙하기 때문에 책과 필기 도구와 칠판의 물리적인 교육 교재에서 디지털 교육교재에 적응은 이미 되었다고 판단됩니다. 판데믹 이전에 이곳 페루 교육부에서 영상 수업을 인정하지 않는 배타적인 자세였으나 판데믹으로 인하여 다른 선택이 없이 모든 교육 기관들이 TV나 컴퓨터로 교육을 받고 있으므로 팬데믹 이후에 정부에서 어떤 관점으로 영상 수업을 인정할지 궁금합니다. 판데믹 이전에는 거의 모든 판매는 상가 지역과 가게에서 이루어 졌었는데 팬데믹을 지나면서 많은 가게가 패점을 하였고 일부 가게들은 인터넷과 배달 판매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코비드가 시작되면서 사람들은 공황 상태였고, 모든 업무와 교육과 거래가 중지된 상태가 지속하다가 생존을 위한 방법을 찾게 되고 코비드 사태에 익숙해 지면서 방법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모든 업무와 교육에 보조적으로 사용되던 인터넷이 필수적인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인터넷이 언젠가는 이런 필수적인 자리에 올리라는 예상을 하였지만 팬데믹으로 인하여 그 시기가 급격하게 앞당겨진 것입니다. 판데믹으로 인한 현 상황에서

어떻게 주님께서 주신 사역을 지속하며 발전 시켜나가야 하는 것이 저희에게 주어진 과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는 선교를 하면서 항상 효과적인 선교를 위하여 Mobilization과 Multiplication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이는 선교지의 인적 자원을 훈련하고 이들로 인하여 믿는 자들의 배가입니다. 페루 선교 초기(90년대)에 저희가 리마의 동쪽 지역에서 사역하면서 아이들은 많은데 성경 활용법을 가르칠 교사와 자료들이 없어서 이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2001부터 AMED(Association Ministerial Escuela Dominica-주일학교사역협회)를 조직하여 매년 초교과적으로 주일학교 교사들을 위한 여름 성경학교 교사 강습회를 개최하고 자료들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20년 동안 매년 준비하는 여름성경학교 교사 강습회와 이를 위하여 자료들을 매년 마다 개발하는 데 많은 노력과 인원과 자금이 투자됩니다.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아름답고도아름답도다



페루 선교
김성일 & 성숙 선교사

2022년 여름 성경학교

내년 1월에 있을 21회 여름 성경학교 교사 강습회를 위해 교재마다 각과에 들어갈 삽화들과 음악과 율동이 잘 준비되고 홍보가 잘되어 주일학교 교사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기도부탁드립니다.

약 10년 전부터 여름성경학교를 위한 자료들을 영상으로 제작하여 온라인으로 제공하기 시작하였고, 강습회와 온라인 강좌 프로그램들도 영상으로 제작되어 함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2021년 겨울 성경학교

AMED와 몬떼리꼬 교회의 동역으로 이곳에 겨울인 지난 8월 초에 제1회 겨울 성경학교를 리마와 지방의 어린이들 대상으로 3일 동안 온라인으로 하였습니다. 판데믹으로 인하여 어린이들이 겪고있는 변화의 시기에 노아의 방주와 예수님의 구속 사역에 관계된 하나님의 은혜가 주재였습니다.

교사 강습회

주일 학교 교사들을 위한 인터넷 강좌는 지난 8월 9일에 온라인 수료식 <https://www.youtube.com/watch?v=BhZybZfjIHk> 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8월 23일에 개강식을 하여 4개

월간에 걸쳐 온라인으로 교사들을 강습하게 됩니다. 이번 강습회에는 콜롬비아와 페루의 아마존 지역의 교사들도 등록하였습니다.

CAPACITACIÓN VIRTUAL 2021 - II

23 AGOSTO EL MAESTRO Y SU LLAMADO El llamado a servir en la enseñanza, su perfil, su carácter bíblico y el modelo como enseñante Jesús.	6 SEPTIEMBRE EVANGELISMO DEL NIÑO Presentando el plan de salvación, pasos para evangelizar, métodos, cómo y dónde evangelizar.	20 SEPTIEMBRE CONOCIENDO A LOS NIÑOS A los niños de 3 a 11 años, considerando su individualidad, en sus aspectos mental, social, físico y espiritual.	4 OCTUBRE DISCIPULADO DEL NIÑO Conservando y consolidando a los nuevos creyentes, herramientas para discipular.
18 OCTUBRE INTELIGENCIAS MÚLTIPLES Que son las inteligencias múltiples, su aplicación en la enseñanza y el aprendizaje.	1 NOVIEMBRE MEMORIZACIÓN DE TEXTOS Técnicas y dinámicas para enseñar los versículos bíblicos a los niños de manera creativa y participativa.	15 NOVIEMBRE CLASE MODELO Desarrollo de una clase con motivación, historia bíblica, memorización de texto y aplicación a la vida del niño.	
29 NOVIEMBRE CONFECCIÓN DE TÍTERES Como elaborar títeres, muppets, lectura de máscaras, confección y acabados.	13 DICIEMBRE DISCIPLINA EN EL AULA Diversas estrategias para la modificación de conducta de nuestros alumnos.	27 DICIEMBRE ANIMACIÓN Y VOCES DE TÍTERES Cómo preparar nuestra voz para caracterizar personajes y cómo preparar un guion corto.	

S/.120
PAGO ÚNICO

CONTACTANOS:
987-717-2215
AMED.EBOV@GMAIL.COM

AMED EBOV
WWW.EBOV.ORG

FECHA DE INICIO
23 DE AGOSTO

목회자 연장교육

팬데믹으로 인하여 모든 학교의 정상적인 수업이 중지된 상태가 1년 반이 지나면서 여러 교단들이 목회자들을 위한 연장 교육이 필요하기에 AMED과 협력의 가능성을 모색하며 교회들과 목회자들의 필요성을 연구하며 돕기위해 기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일년 전부터 초교과적으로 리마와 안데스 산악지역에서 사역하는 목회자 사모들 중심으로 모임을 조직하여 3주에 한번씩 영상으로 말씀을 나누고 격려하는 교제를 갖고 있습니다.

기도 부탁드립니다.

1.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도록
2. 현지인 사역자들도 말씀과 기도로 축복받도록
3. 콜롬비아에서 사역하고 있는 김 규범 & Anna(Lucia & Noemia) 선교사들을 위해.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아름답고도아름답도다



러시아 선교통신

윤미경 선교사

샬롬!!!

현재 (2021.9.12) 러시아는 총확진자 수 7백20만 명을 돌파했고 일 일 확진 자수는 2만 명 수준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작년 3월부터 6개월 정도 러시아 정부 방침에 따라 예배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 기간은 동역자 슬라바목사가 음성메시지를 통해 비대면으로 매주 예배를 드렸습니다. 작년 9월부터는 교회당에서 마스크 쓰고 손 소독하고 체온 체크하면서 매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코로나 19의 위험 속에서도 매주 사오십 명씩 주일예배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소그룹모임과 성가대와 주일학교는 부득이 중단했습니다. 그 사이에 러시아 교인 중에는 교회에서 감염되었다기보다는 학교나 직장에서 감염되어 교회에 못 나오는 성도가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또 코로나가 어떤지도 모르고 늘 겪는 독감 정도로 생각하고 그냥 교회 나오는 성도도 있었습니다.

저와 아내 딸도 러시아 교인들과 같이 예배드리고 대화하고 악수도 할 경우가 생기므로 정말 조심하고 조심했습니다. 마스크 구하기가 하늘에 별 따기처럼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의 은혜로 중국 마스크를 구할 수 있었어 전 교인에게 나누어 주고 우리 가족들도 여유 있게 쓸 수가 있어서 얼마나 위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걸리면 죽는다는 생각으로 기도하면서 한주 한주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 중에 친구 선교사와 러시아 목사들이 걸려서 병원에 입원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군대 있을 때 최전방 철원의 백골 사단의 철책선에서 복무했는데 그때도 잘못하면 죽을 수 있겠구나 생각했습니다. 늘 기도하면서 철책선 근무를 했는데 무사히 3년을 마치고 제대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에서 죽어도 하나님의 은혜요 살아도 하나님의 은혜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믿습니다.

코로나를 통해서 놀라운 것은 6개월 동안 예배드리지 못한 기간에 러시아 교인들이 개인적으

로 교회에 찾아와서 기도하고 헌금통에 작지만, 헌금을 하고 돌아가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또 교회는 못 나오지만, 저의 동역자 슬라바목사의 카드 계좌에 십일조와 감사헌금을 보내는 교인들도 있었습니다. 어려움 가운데 적잖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6개월 동안 예배를 드리지 못하다가 작년 9월부터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 시작하는 주일에 교인 중에 그동안 드리지 못한 헌금을 다 모아서 한꺼번에 다 드리는 성도들도 있어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6개월 비대면 예배를 드리면 믿음이 약해지리라 생각했는데 성령님이 우리 성도들을 붙잡고 계신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은 생각하시고 채우시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엡3:20: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넘치도록 능히 하실 분이라.)

이런 코로나 19의 엄중한 상황에서도 연세가 90세가 넘는 두 분이 교회 나오지 말라고(?) 선교사가 말리는 데도 나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마리아와 발렌치나입니다 이 두 분은 다 여자인데 가장 고위험군에 속합니다. 이분들에게 몇 번 권면했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감염되면 죽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분의 대답은 한결같습니다. 죽어도 좋다 차라리 교회 나오다가 죽겠다. 내 삶에 남은 것은 예수 오직 예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나오고 계십니다. 선교사인 나는 죽을까 염려 걱정하는데 이 두 분은 그런 수준을 넘었습니다 (예3:33: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중국에서 추방되어 저와 동역하고 계시며 중국인을 대상으로 사역하는 한국 선교사님이 코로나에 감염되어 한국으로 급히 귀국하셨습니다. 다행히 한국에서 치료가 잘 되어서 고비를 넘기셨는데 후유증이 제법 있는 것 같습니다. 블라디보스톡에서 최초로 건설되는 아파트단지에 새로운 개척 교회사역과 북한국경과 마주 보는 바리바리 지역에 농지 6,000평을 러시아 연해주 주 정부로부터 임대하여 북한 근로자에게 재임대하는 사역 등 사명이 저를 기다리고 있으나 코로나와 재정 문제로 감당하지 못하고 있으니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빌3:14: 꺾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편집자 주

안녕하세요? 2021년도도 벌써 가을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뜨거운 열기가 이제는 잦아들어 상쾌한 날들을 맞이합니다. 아직도 바이러스는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텍사스 최고의 계절을 그냥 보내기 아쉬워 하늘은 또 그토록 푸른가 봅니다. 사람들이 많지 않은 가까운 트랙코스에서 주님과 함께 산책하며 가을의 정취를 느껴보면 어떨까요?

문서선교부에서는 여러분의 원고를 기다립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 가운데 받은 복이 있으십니까?
주님이 허락하신 오늘, 이 시간 말 못할 아픔과 고통이 있으신지요?

행복의 연속은 우리들이 삶을 기만하지 못하도록 하시려는 주님의 특별한 은총이라 생각합니다. 누구나 경험하는 삶의 행복... 그러나 나만이 간직하고 있는 주님과 특별한 비밀이 겨자씨 지면을 통해 발설하심으로써 여러분의 글들이 성도님들의 믿음이 성장하는 자양분이 되게 하면 어떨까요?

앞으로 오고 또 지게 될 수많은 계절처럼 겨자씨는 여러분의 지속적인 원고로 자양분을 얻습니다. 자양분이 없는 나무는 말라버리듯 원고가 없는 겨자씨는 그 존립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원고와 또 그 원고를 나누고자하는 사랑과 용기를 기다립니다.

Dear fellow Christian Members of AKPC!

We seek for your original contributions to Mustard seed magazine. Let us build our tree of life in Christ together. Trees never be trees but just withered bush without nutrition. Likewise, Mustard will stay healthy only if the words of gospel and testimony will be supplied continuously. We all know our life is a woven cloth with joy and frustration. Sharing yours with others will strengthen our community with understanding, learning, and prayer. We are waiting for your contribution and your contribution will make a difference. God is good. Please send us your contribution, either in Korean or English. He is also seeking English editor for the Mustard seed magazine. Please step forward and be a part of all who inspire our church to grow every day.

1. 문서선교에 관심이 있거나 함께 사역에 참여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을 찾고있습니다. ‘제목: 문서선교에 관심있습니다’ 라고만 해 주시고 아래 메일로 연락주세요.

2. 겨자씨에 원고 투고를 원하시는 분들도 언제든지 원고를 아래의이메일로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단 올리신 글에 대해서는 편집위의 검증과 동의하에 겨자씨 원고로 채택됨을 알려드립니다.

3. 겨자씨를 통해 광고를 원하시는 분들은 “사업체명”, “주소”, “연락처”, “회사 로고” 를 아래의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Send your contribution (gospel, testimony, art, or photos...) to
kingkids780@hotmail.com

겨자씨 편집위원 일동.



어스틴한인장로교회

예수산책

말씀으로 세워지는 공동체

A church that stands on God's Word

Worship 예배시간안내

주 일 예 배	KM 1부 (한/영 동시통역)	주일 오전 8:30
	KM 2부	주일 오전 11:15
	EM(영어회중)	주일 오전 9:45
	청년	주일 오후 1:00
주 중 예 배	Good Morning 말씀산책	월-금 오전 6:30
	화요기도회	화 오전 10:30
	토요무릎기도회	토 오전 6:30
교 회 학 교	영유아부	주일 오전 10:15
	유치부	주일 오전 11:15
	유년부(CM)	주일 오전 11:15
	중고등부(YOUTH)	주일 오전 11:15
	토요한글학교	토 오전 10:00
	갈렘대학	금 오전 10:00
	장년성경공부	주일 오전 9:45
	장년성경지도자반	금 오후 9:00
목장모임	매월 1회	

12311 Natures Bend, Austin, TX 78753

☎ 512) 454-1727 / Fax 512) 454-6888

www.akpc.org / akpc@akpc.org